

만남

10

2023
통권 596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C O N T E N T S

이달의 말씀

02 너희는 나의 종이요 김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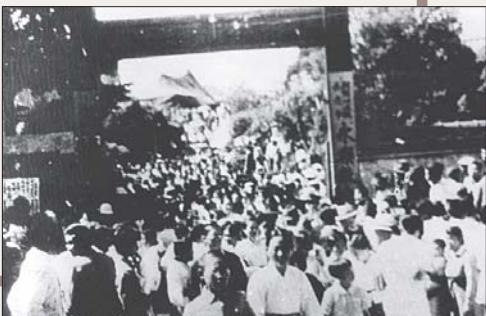
특집 선교

06 선교, 하나님의 보내심 조두형

08 구원 & 전도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최재선

10 일상에서 신앙 실천, 그게 선교 김도훈

12



교회표어

말씀따라 행진하라
(민수기 9:23)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26

12 『사송영락교회』 개척 필요성과 진행 상황, 비전 심재수

16 한글 실력 뽐내고…선교사 특강 듣고 인미

18 모든 걸 예비하시는 우리 주님 정인기

20 오래된 담에 표정 넣기, 하늘의 평안이 거기에 영미선

22 흡박 심해진 무슬림국 선교 하순종

다음세대 청년광장 하기선교

26 더 큰 사랑 받고 왔어요 전신호·최성민

28 ‘작은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김민지

30 하나님의 절 불렀죠 김은영

32 공동체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얼굴 박예은

34 순간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 임예원

5대 본질

예배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만남

2023년 10월호 통권 596호



야곱의 우물가

36 원팀, 원골…하나됨 배운 축구캠프 안태정

38 겸손 일깨워준 순회연주 장보석

영락의 울타리

40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나의 하나님 최에녹

42 故황광성 은퇴장로 추모글 김의환

44 故김성보 은퇴안수집사 추모글 김태영·김경옥

칼럼

46 한글 400년 긴 잠 기독교가 깨웠다 강사회

48 모자보건법 개정안 가정 무너뜨린다 이명진

문화광장

51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박지운

52 생명의 빛 송경희

53 영락시어터 10월 상영 영화

표지설명

삶에서 멈춤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엄숙함을 되찾아주는 계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활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의 맑고 청명한 하늘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으며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있습니다.

54

교회소식

54 연무대군인교회 진중세례식 외

58 유아세례 / 새가족 명단

60 야곱에 투사시킨 우리의 모습 정재원

10월 목회력

- | | | |
|----------|----|--|
| 06 | 금 | • 연합권찰모임, 문화선교축제 |
| 07 | 토 | • 영락가족 특별사역기도회 |
| 08 | 주일 | • 주일예배 성찬(1부~5부)
선교주일, 학원선교대회 |
| 11~13 | | • 선교부흥회 |
| 15 | 주일 | • 사랑부, 고등부, 대학부·베드로부,
청년부, 자유인, 국제예배 성찬,
제직회 |
| 15~11/19 | | • 하반기 전도캠페인 |
| 20 | 금 | • 심방준비회 |
| 22 | 주일 | • 사회봉사주일,
아동부찬양제 리틀스타 |
| 23~25 | | • 포이메네스 사모 영성수련 |
| 29 | 주일 | • 종교개혁 기념주일, 소그룹의 날 |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김운성 위임목사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사야 43:12)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일찍부터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후 경제적으로 유복하지만, 복음에 대해 극단적 반감을 가진 가정의 딸과 교제했는데, 그 가정은 신학생과 결혼하면 호적에서 제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고, 신부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선교지로 떠났고, 표현하기 힘든 고초를 겪으며 선교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문명의 이기라곤 조금도 누리지 못하는 정글의 미개한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길 없는 숲에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심지어 의사는 아니지만 죽어가는 원주민을 수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십여 성상을 주님께 충성하던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모 교회에서 선교사님 내외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날 교회 주차장에는 최고급 외제 승용차가 여러 대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사모님의 어머니와 오빠들을 비롯한 가족들이었습니다. 그 지방에서 유명한 부잣집 다웠습니다. 결혼할 때 딸을 쫓아낸 후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딸 내외와 손주들이 귀국한 것을 알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선교지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일 원짜리 하나도 도와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얼굴이나 보겠다고 온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교회에서 잠시 만났을 뿐, 이십 여년 만에 귀국한 딸네 가족을 집에 데려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손주들도 있는데 집에서 하룻밤도 재우지 않은 것이지요. 가족들은 지금이라도 선교

선교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 일편단심 달려가는 것 하나님 주신 사명, 힘들지만 아름답고 열매는 달콤

를 포기하고 돌아오면, 손주들도 있으니 사위로 받 아주겠다면서, 선교지를 떠나 한국으로 와서 자신들의 일을 거들라고 했답니다. 그래도 선교사님 내외분은 꿋꿋했습니다. 조금도 굴하지 않았고, 물질적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선교사님 내외는 선교지에서 충성을 다하셨으며, 모 TV 프로그램이 이분들의 삶을 한 시간 동안 특집으로 방영한 일도 있었습니다.

선교를 생각할 때마다 이분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선교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편단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눈물을 삼키면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교는 성도의 신앙을 가장 진하게, 극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 여겨집니다. 지금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든가, <저, 지금 선교사로 ○○ 나라에 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를 보면 존경심이 생깁니다. 선교는 신앙의 가장 진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락교회는 지금까지 다양한 많은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선교의 과정은 어렵지만, 열매는 아름답고 그 맛은 달콤합니다. 앞의 선교사님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교사님 내외는 몇 해 간격으로 두어 차례 그 교회를 더 방문하셔서 선교 보고와 간증

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교하는 이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최고였습니다. 선교사님의 장모께서 성령님 안에서 변화되시고 성도가 되신 것이지요. 그 후에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동행하셨는데, 가장 큰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셨다고 합니다. 장모님께서는 새벽기도회에 매일 나가 사위와 딸을 위해 기도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사위 자랑에 세월을 보내게 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이 첫 성도에게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어려움을 무릅쓰고 다른 교회와 선교지를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교회에 복을 주셨습니다. 빠른 시간에 교회가 자립했고, 지속적으로 선교하는 일에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 선교대회가 10월 11일부터 <말씀 따라 증거하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선교는 성도와 교회에게 선택과목이 아니라, 필수과목입니다. 선교는 앞의 선교사님 경우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 거룩한 비장함을 담는 통로입니다. 선교하는 성도는 진지해지고, 기도하게 되고,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간증이 생깁니다. 선교적 수고는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을 선교에 모으길 원합니다. 금번 선교 대회를 통해 우리 심령에 은혜와 감동이 고여 흘러, 선교적 인생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만남**

말씀따라 증거하라

2023년
선교대회
10월 6일(금) ~ 13일(금)



고명진 목사

선교부흥회

10월 11일(수) ~ 13일(금) 저녁 7시 본당

주강사 고명진 목사 (수원 중앙 침례교회)

문화선교축제

6일(금) 저녁 7시 30분

베다니홀

뮤지컬 '구레네 시몬'

선교주일

8일(주일)

1부 ~ 5부 마당행사

학원선교대회

오후 5시(찬양예배) 본당

곽상학 목사 (안양제일교회 교육부 총괄)

수요1부 기도회

11일(수) 오전 10시 30분 본당

김일현 목사 (국수교회)

선교바자회

11일(수), 13일(금)

베다니광장

주관 : 여전도회

선교특강

12일(목) 오후 1시 드림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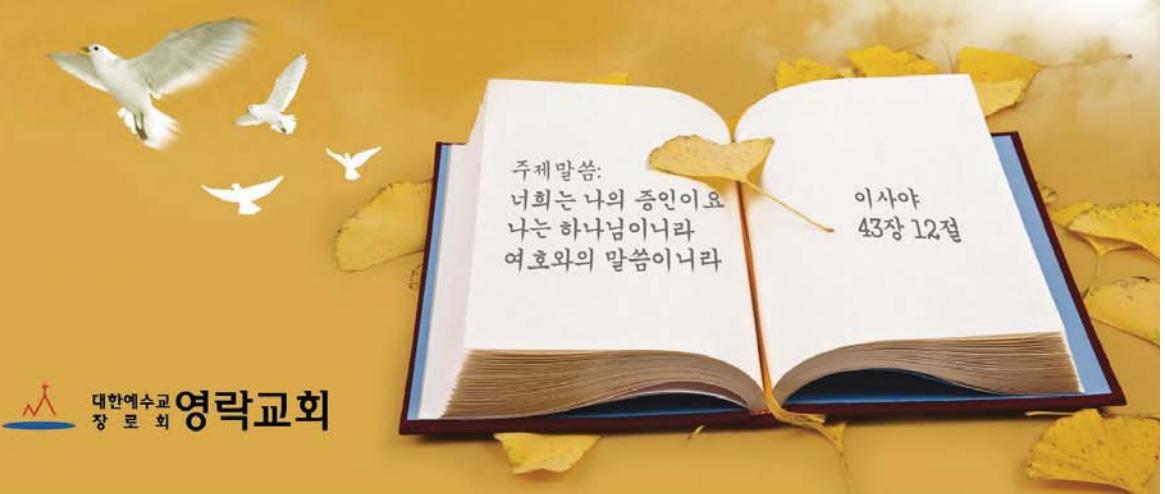
•이기성 목사 (초원교회)

•김택조 목사 (총회 군종목사 단장)

•레크미 선교사 (네팔, 네트워크선교사)

•손은희 목사 (총회문화법인 사무총장)

선교목적헌금 :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가을이 영글어가는 10월입니다.

올해도 석 달 밖에 안 남았네요.

영락의 성도님들 발 딛고 있는 곳은 어디쯤인지요.

말씀 따라 행진해 온 삶.

이젠 복음의 씨앗 뿌리기에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바로 그곳 선교사는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선교, 하나님의 보내심



나를 당신들 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창세기 45:7)“

‘나는 여기에 왜 있을까?’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 그 의미와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갈망(willing to meaning)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출애굽기 3:10)”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가장 성경적인 대답은 ‘하나님이 보내셨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이자 선교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사명을 받고, 보내고, 보냄 받는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두형 목사
선교전담

요셉은 벼림받은 줄로 알았지만, 실제로는 생명을 구하는 자리로 보냄 받은 인생이었습니다(창세기 45:7). 모세는 실패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민족구원을 위한 보내심이었습니다(출애굽기 3:10). 예레미야는 심판을 앞둔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예레미야 1:7), 엘리야는 국제정치 한가운데로(열왕기상 19:15~18) 보냄 받습니다. 복음을 위해 보냄 받으신 예수님(누가복음 4:16~19)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마태복음 10:5~8).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와 구제를 위해 교회로부터 파송 받습니다(사도행전 11:30).

선교는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요한복음 20:21)’ 보내시고 보냄 받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에서 우리는 선교의 근원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성도가 추구하는 ‘예수님과의 영적 친밀함’이 단지 ‘정(情)적인 연합’과 ‘자기만족에의 안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알게 될수록 자신을 초월하는 무언가

를 ‘더’ 추구하게 됩니다. 구원을 진정으로 경험한 깊은 영성은 반드시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이웃과 세상을 향합니다. 이렇게 ‘보냄과 보냄 받음’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의 관계 맷음을 통해 우리는 ‘선교’의 근원과 교회의 정체성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선교하시니라

단순히 ‘지상명령’으로부터 선교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사실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온 우주를 만지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죄를 범하고 숨어 버린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창세기 3:9)’ 찾으시는 음성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최초의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든 죄, 사탄, 죽음을 이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약의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 교향곡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방을 복되게 하는 존재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이스라엘 언약의 계승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하십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새로운 종말론적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등장합니다.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새롭게 모여든 메시아적 공동체가 이제는 ‘열방의 빛’이 되는 이스라엘의 선교를 재개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위대한 구원의 교향곡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계속 연주되고 있습니다.

선교 : 먼저 회복되어야 할 이야기들

자기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공동체에서 지

속해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선교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없는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선교는 공허하며, 말씀 없는 선교사역(missions)은 맹목적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하나님의 선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중심의 자기 만족적 선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한 선교를 지속하고 완주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온 세계에 전했다고 자부하는 최고의 선교사 파송 국가들이 더 세속적인 복음의 불모지가 되고 말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구약을 꿰뚫는 하나님의 선교, 성경적 조망 없는 선교는 허약하고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시대에 중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세상에 전할 우리의 이야기와 노래, 목소리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선교적 사명’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질서를 회복하는 ‘창조론적 사명’, 앞으로 오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선포하는 ‘종말론적 사명’, 그리고 오늘날 척박한 현실에서 마주하는 우상숭배자와는 전혀 다른 구별된 대조 공동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존재론적 사명’을 포함합니다. 2023년 선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외교관으로 이 땅에 보냄 받은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큰일, 축복의 복음을 온 열방에 선포하며, 끝까지 함께 충성하여 완주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만남**

구원 & 전도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2023년 가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한 영혼이 천하
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영혼 구원의 자리, 전도의 자리로 영락의 모든 성도님을 초청합니다.



전도는 왜 해야 할까요?

첫째, 전도는 주님의 절대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승천 하시기 전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인 ‘지상 대명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해당하며 주어진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둘째, 전도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에서 이보다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드러난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생명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전도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현실에 안주하여 가만히 멈춰 있도록 만들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주십니다.



최재선 목사
안양·수원교구
전도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

10월 ‘성령의 바람’주제 세미나·기도회
11월엔 ‘전도의 바람’ 금요기도회 이어져

전도하고 싶었지만 혼자 전도하는 중에 겪는 여러 어려움과 한계로 인해 힘들고 지치신 여러분에게 영락교회 전도부가 함께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힘내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여 함께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바람, 전도의 바람’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10월 ‘성령의 바람, 관계전도세미나와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나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로 아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11월에는 ‘전도의 바람, 특별금요기도회’의 자리로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도에게 기도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전도 대상자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로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으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이번 2023년 총동원 전도 캠페인 ‘말씀따라 전도행진’을 통해 우리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님과 가정, 그리고 일터와 직장, 또한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성령의 바람과 전도의 바람이 가득히 불어와 하나님께서 베풂어 주시는 영혼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만날**

말씀따라 전도행진
2023년 총동원 전도 캠페인
9월 10일~11월 19일
“성령의 바람,
전도의 바람 불어오소서!”
성령의 바람, 관계전도 세미나 & 기도회

전도의 바람, 특별 금요기도회

- 강사 : 최재선 목사 (영락교회)
장소 : 봉사관 B1F 예배실
일시 : 10월 15, 22, 29일
오후 3시30분
- 강사 : 남성혁 목사 (장신대 전도학)
장소 : 본당
일시 : 11월 3일 오후 8시
- 강사 : 정명호 목사 (혜성교회)
장소 : 본당
일시 : 11월 10일 오후 8시
- 강사 : 김운성 위임목사 (영락교회)
장소 : 본당
일시 : 11월 17일 오후 8시

총동원 전도 주일 11월 19일(주일) 1-5부

성령의 바람 **전도의 바람** **전도왕 시상**

10월 15, 22, 29일 11월 3, 10,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 전도부

일상에서 신앙 실천, 그게 선교



예배는 일상의 삶으로

오래전에 미국의 여러 교회를 방문하는 경험을 했다.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소개받아 매주 그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그런데 이들 교회의 대부분은 예배 마지막에 축도가 없다는 점이 특이했다. 축도가 없는 예배가 익숙하지 않아 어색하기도 했고 예배가 세속화된 것 같았으며 지나치게 현대 문화에 아부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 이유가 궁금했다.

후에 예배학자를 통해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예배는 끝이 없으며 일상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축도함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

이 아니라, 교회 예배가 일상의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의 시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미 있는 대답이었다. 예배에서의 체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각자의 삶에까지 이어져야 하며, 예배에서 했던 신앙의 결단이 세상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되새기게 된 계기였다. 그렇지만 축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세상을 향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으리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었다.

이렇게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또는 사적 영역만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 때문이다. 신앙은 ‘일상과 연계’해서 ‘삶으로 실천하는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도훈 교수
장신대 조직신학

‘사는 선교(Living mission)’란 일상의 선교

한국 교회는 선교를 매우 중요시한다. 복된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선교의 진정한 의미이다. 우리는 종종 ‘가든지, 보내든지’라는 구호를 외치곤 한다. 이것은 해외선교를 염두에 두고

외치는 구호다. 결코 틀린 구호는 아니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에 보완하고 싶은 구호가 있다. ‘사는 선교’(living mission)다. 가는 선교나 보내는 선교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매일의 일상적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의 제자로 살아, 그의 제자를 만드는 것 또한 가는 선교 못지않게 중요하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일상의 선교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학자인 레너드 스윗(L. Sweet)은 선교를 “세상에서 예수의 사명에 참여하는 것,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을 우리 삶과 공동체의 경험 속에서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의 댄 킴볼(D. Kimball) 목사는 다음과 같이 선교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교회 자체를 선교사로 여기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선교사로 여기는 것.

둘째,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모든 방향을 맞추며,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에 보내어지신 예수의 대리자로 여기는 것.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문화 속에서 활동하고 계심을 깨닫고 그가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

넷째, 세상을 살며 문화에 참여하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다섯째, 세상을 섬기며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여섯째, 기도를 통해 예수와 성령께 의존하며, 성서에 의존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서로 의존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사는 선교는 하나님 나라 살아내기

여기서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일

교회 안과 밖의 삶 한결같아야 참기독인
가거나 보내는 선교에 ‘사는 선교’ 더해야
지금 살고 있는 곳 선교사는 바로 우리

주일 내내’, ‘문화’, ‘세상’, ‘세상을 섬기며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상과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란 ‘사는 선교’다. 즉 모든 곳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 기독교적 삶이다. 이것을 레이 앤더슨(R. Anderson)은 “하나님 나라 살기 (kingdom living)”라고 말한다. 즉 선교란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냄으로써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는 선교’나 ‘하나님 나라 살아내기’는 그리 거창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예수도 유대인으로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일상의 삶을 사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집, 학교, 일터 등 매일의 삶의 공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담임을 인정하고 실천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다. 선교는 거창한 것이 아닌 바로 일상의 삶이라는 뜻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이미지에 대한 과제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조롱당하고 희화화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며, Sunday만이 아닌 Everyday 선교사(Missionary)가 되어야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과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선교이자 실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모든 곳에서 선교사다.” **만남**

양산 사송신도시『사송영락교회』개척 필요성과 진행 상황,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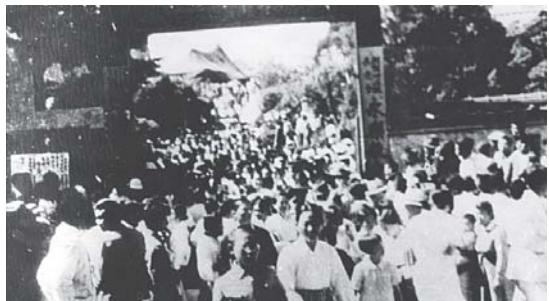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3:10~11)

비전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하여 영락교회를 세우고, 열악한 천막교회 시절에도 인천에 교회개척의 사명을 꿈꾸게 하였습니다. 전쟁으로 피난 중에도 부산에 교회를 세웠던 영락교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주신 사명과 정신을 이어받아 이제 교회창립 80주년을 맞이하여 불교의 땅 양산에 사송영락교회를 개척합니다. 침체되어가는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을 꿈꾸며 다음 시대와 세대를 계속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개척과 복음 전파는 교회의 기본사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실천입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트렌드에 대응하는 선교전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교회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심재수 장로
중구·용산교구
교회창립 80주년 기념사업 교회개척분과장
영락교회유지재단 이사장



영락교회 첫막교회 시절 제공 영락교회 70주년 기념화보

영락교회의 시작

1945년 12월 2일 주일 아침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하여 북한 탈출 성도 27인이 첫 예배를 드림으로 대한민국에 역사적인 영락교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영락교회의 개척교회 1호 인천제일교회

창립 1주년도 안된 영락교회가 1946년 11월 15일 당시 서울의 관문인 인천지역에 '개척교회 1호'로서 인천제일교회를 개척하고 개척전도목사를 파송하였습니다.



첫 개척교회 인천제일교회(1946.11.15)



6·25전란의 역경에서 세운
부산영락교회(1953)



부산영락교회 헌당식 기념(1954.3.14)

제공 영락교회 70주년 기념화보

전쟁 중에도 개척한 부산영락교회

1951년 1월 7일 6.25사변으로 한경직 목사님과 피난 성도 중심으로 첫 예배를 드리고 부산영락 교회 개척의 모체가 되어 1954년 3월 14일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하였습니다.

불교의 땅 양산에 개척한 양산중앙교회

1957년 2월 부산영락교회 남선교회가 중심이 되어 불교의 땅 양산에 양산중앙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양산중앙교회

제공 영락교회 70주년 기념화보

교회개척의 사명을 이어가는『사송영락교회』

2021년 9월 7일 양산중앙교회(담임 정지훈 목사, 2011~2016년 영락교회 부목사)가 당회원 일동으로 양산 사송신도시 종교부지에 영락교회가 교회건축, 목회자 파송 등 독립된 교회를 개척하여 담당해 줄 것을 서면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종교부지는 양산중앙교회가 분양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사송 신도시는 어떤 곳 ?

- ① 부산 인구 과밀 해소를 위해 조성되는 신도시
- ② 경상남도 양산시 사송지구 공공주택지구 1만5천여 가구 개발 입주 중에 있음
- ③ 서울 여의도 면적 크기인 약 83만6천여 평에 4만여 명 이상 4050세대 거주 예상
- ④ 부산시 금정구와 맞닿아 있으며 양산시청에서 직선거리로 약 3Km 떨어져 있음



- ⑤ 양산 도심권역을 비롯해 울산 등 인근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해 부산, 울산, 경남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주목 받고 있음
- ⑥ 2024년 개통 예정인 부산 지하철 1호선 연장선 양산도시철도(노포~사송~북정 구간)가 들어서면 부산까지 5분 안에 접근할 수 있음

영락교회 비전위원회 교회창립 80주년 기념사업으로 「사송영락교회」 개척을 이어 갑니다

- ① 교회명 :『사송영락교회』(부산남노회 소속, 경남노회유지재단 귀속 예정)
- ② 주소지 : 경상남도 양산시 도연 내송리 900
- ③ 건축규모 : 지하1층(기계실, 창고 등) 지상3층, 예배석 280석, 대지354평
- ④ 착공예배 : 2024년 1월 18일 오전11:00, 『사송영락교회』 건축 현장
- ⑤ 준공예정 : 2024년 12월

『사송영락교회』는 새로운 교회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아름답고 주민 친화적 교회로

- ① 본당은 예배를 본질로 예배당답게 설계
- ② 고정 공간은 최소화하고 다목적 공간을 최대화
- ③ 소그룹 활동에 유연하게 활용
- ④ 4050세대와 영유초중생들의 연령별
눈높이를 고려
- ⑤ 북카페 등 지역주민과 친화적 시설로
접근성 및 개방적 공간으로 활용
- ⑥ 근접 공용주차장, 공원과 연결성 및 접
근성을 고려



이것이 궁금합니다

Q & A



Q1 인구감소 및 교회침체 추세에 교회개척을 하는 배경과 필요성은?

- ① 15,000여 세대 신도시 지역으로 교회가 필요한 곳에는 교회개척을 추진하는 것은 교회의 기본 사명
- ② 영락교회 창립 80주년 기념사업으로 뜻 깊은 교회개척의 복음전도의 구원사역

Q2 원거리 양산 신도시에 교회개척 하는 이유와 책임건축 안전시공 등 관리방안?

- ① 영락교회는 지교회를 지양하기 때문에 개척교회는 영락교회와도 무관하게 최종적으로 독립적 운영을 기본으로 함으로 거리에 무관함
- ② 양산중앙교회와 시작부터 설계, 시공, 감리 등 상호 협력 하에 역할과 책임을 분담 함

Q3 건축 완공 후 교회 운영과 자립에 대한 방안은?

- ① 새로운 선교전도 패러다임과 한국교회 트렌드에 적합한 목회자 청빙과 파송이 중요
- ② 지역세대의 특징을 고려한 건축설계, 지역 친화적 시설과 눈높이에 맞춰 운영
- ③ 일정기간 양산중앙교회와 협력하여 성도 파송 및 전도 팀 등 운영
- ④ 1만5천 세대 신도시 지역으로 최단기간 자립을 예상하지만 일정기간 영락교회의 지원

Q4 교회자산의 사유화 방지와 분쟁에 대한 대책은?

- ① 영락교회·양산중앙교회·경남노회유지재단 3자 계약으로 책임 및 역할을 공증 함
- ② 현당이후에는 독립교회로서 운영, 분쟁 시에는 영락교회 소유로 함

Q5 영락교회 내부 공간·시설 등에도 재정의 필요한 곳이 많은데 외부교회 개척을?

- ① 교회내부 시설개선과 공간 확보도 병행하면서, 밖으로는 사송신도시에 영훈구원과 복음전파를 위해 우선적으로 교회개척이 필요한 지역
- ② 열악한 환경에서도 외부 교회개척을 이어왔던 교회의 정신을 교회창립 80주년을 맞아 계승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영락사도행전의 사명을 완수함

Q6 성도들은 교회개척과 건축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 ① 안전하고 완벽한 건축을 위해 설계, 시공, 준공, 빠른 자립을 위해 기도로 참여해 주십시오.
- ② 교회건축을 위해 교회창립 80주년 기념사업 특별헌금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③ 교회건축 완공 후 예배당과 각종 시설에 필요한 전광판, 음향영상기기, 피아노 등 비품에 현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④ 목회자를 위한 사택 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글 실력 뽐내고… 선교사 특강 듣고 2023선교대회 10월 6일 개막



올해 선교 대회는…

2023 선교대회가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본당과 교회 마당에서 다양하게 펼쳐진다. “말씀따라 증거하라”를 주제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43:12)”를 말씀으로 열리는 2023년 선교대회. 여느 해 보다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프로그램에 역력하다. 이제 만나게 될 선교대회 그 생생한 현장을 미리 만나 본다. – 편집자 주

사전프로그램은…

문화선교! 해외선교팀이 포문을 연다. 6일 저녁 특별 금요기도회. 베다니홀에서 문화선교팀의 <구레네 시몬> 창작 뮤지컬 공연으로 시작을 알린다. 이어 7일 오전, 올해 처음으로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하는 외국어예배팀의 <영락한글자랑대회>는 6개국의 해외유

학생이 나라별 대항으로 참여한다. 지난 6월 뜨거운 열기 가운데, 한차례의 리허설을 통해 본선 진출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다. 이번 대회는 한국에 온 해외 유학생의 공부와 생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한글 습득’인 것에 착안한 것으로 향후 선교 수단으로도 좋은 반응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오후에는 구레네 시몬 뮤지컬이 본 공연을 갖는다.

주요 프로그램은…

올해는 특별히 신설된 시대적 필요성에 따른 문화 특강과 함께 가장 핫한 강사진이 눈길을 끈다. 즉 매년 진행해 온 선교부흥회 말씀, 수요기도회, 학원선교, 선교특강(국내(농어촌·군), 해외, 문화선교)가 있으며, 이외에도 수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에 걸쳐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선교바자회를 진행한다. **만남**

주강사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수요예배 김일현 목사 (국수교회)

선교부흥회(11, 12일 저녁) 주강사는 고명진 목사이다. 11일 오전 수요예배를 맡는 김일현 목사는 현재 양평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선교사역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향후 한국 교회가 지향할 바람직한 지역교회 모델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주인공이기도 하다.



고명진 목사

올해 처음으로.. 문화선교 신설 및 해외 네트워크 선교사 초청 선교 특강

선교특강 강사로는 학원선교에 광상학 목사(현 다음세움선교회 대표. 전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육목사), 농어촌교회에 이기성 목사(현 초원교회. 진주 소재), 군선교에 김택조 목사.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문화선교에 손은희 목사(총회 문화법인 사무국장)가 맡는다. 김택조 목사는 통합 측 군종 장교 중에서 제일 선임으로 현재 군선교 현장 상황과 향후의 방향성에 관해 제시할 예정이며, 문화선교의 손은희 목사는 총회에서 문화사역의 방향을 오랫동안 이끌어온 실무자로 큰 기대를 모고 있다.

특별히 해외선교 강사로 모신 네팔 레크미 선교사는 처음으로 초청된 네트워크 선교사로서 인도에서 신학교 졸업 후 한국 유학 시절 영락교회 외국어예배를 섬기고 고국으로 돌아가 목회를 시작. 재 파송한 네트워크 선교사로 향후 바람직한 해외선교 모델로 입지적인 인물이다.

8일 선교주일에 진행하는 마당행사(9~15시)는 외국어예배팀 특송(2·3부 사이 러시아·중국·몽골 / 3·4부 사이 네팔·베트남·미얀마), 문화선교팀 난타 공연과 스티그마 공연(4·5부 예배 후), 3개 학원과 8개 학교가 참여 한 학원선교 부스 등이 있다. 저녁 찬양예배 시에 학원선교대회를 진행한다.

선교바자회.. 지리산 농수산물

올해 선교바자는 제1여전도회 주축으로 농어촌미자립 교회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지리산 자락 농어촌 미자립교회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예정으로 큰 호응이 기대된다.



네팔 레크미 선교사 손은희 목사

2023 선교대회(10.3~10.13) 일정표

구분	10.6(금)	10.7(토)	10.8(주일)	10.11(수)	10.12(목)	10.13(금)
오전			선교주일 마당행사 (09:00~15:00) · 강사 김일현 목사	수요1부 기도회(본당) (10:30~11:30) · 강사 김일현 목사	선교특강 (13:00~17:00) · 이기성 목사 · 김택조 목사 · 레크미선교사 · 손은희 목사	선교 바자회
오후		외국어예배팀 영락한글자랑대회 (10:00~14:00) 뮤지컬 공연 창작곡(예정) “구레넷시몬” (15:00~17:00)	뮤지컬 공연 창작곡(예정) “구레넷시몬” (15:00~17:00)	외국어예배 연합예배 (14:00~15:00)	선교 바자회	
저녁	문화선교축제 특별금요기도회 (19:30~22:00, 베다니홀) 뮤지컬 “구레넷 시몬”		학원선교대회 (찬양예배 시) · 강사 광상학목사	선교 부흥회(본당 19:00~20:00) · 주강사 고명진 목사 (수원 중앙 침례교회)		취재 인미 기자

모든 걸 예비하시는 우리 주님

3박4일 인터넷해외선교봉사를 마치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3)

샬롬!!! 영락 교우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저는 3남선교회 회장 정인기 집사입니다. 글 쓰기가 서툴어 마음속 생각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까 염려되지만, 이번 2023년 제24회 인터넷해외선교봉사를 통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음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유년 시절에는 주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과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중학생 때 은사님의 인도로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은 주님의 예비하심이라 생각합니다. 가정의 경제적 곤궁함, 부모님의 불화, 다른 가정과의 비교로 인한 열등감 등 힘들었던 상황보다 교회에서 성탄절 새벽송을 다니던 즐거운 기억이 더욱 앞서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느낍니다. 2023년, 주님께서 제게 영락교회3남선교회 회장 직분과 제24차 인터넷해외선교봉사 사역을 감당케 하셔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정인기 집사
강동·송파교구
제3남선교회 회장

국내 활동 외국인사역자에 IT기술 전수

‘인터넷해외선교’(인해선)는 3남선교회의 중점 사역입니다. 1999년 싱가포르에서 시작해 23년간 지속해온 사역으로,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컴퓨터 활용기술을 직접 알려드리고, 아울러 쉼과 휴식을 제공하여 그 땅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역에 도움을 드리는 귀한 사역입니다.

올해는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115만 명과 외국 유학생 15만 명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외국국적 사역자(목사, 전도사)들을 위한 ‘인해선 봉사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대상자와 프로그램 선정부터 봉사자 모집, 물질 후원, 봉사 진행까지 모든 순간 주님의 예비하심이 없었다면 결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내 연약함 내려놓자 생긴 놀라운 은혜들

3남선교회 회장으로 선출된 후 인해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6월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재정 부족과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선을 시작도 하기 전에 올해는 포기할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제 삶을 인도하고 여기까지 동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믿음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불편하고 힘들었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주변에 동역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힘으로 인해선 선교사역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이 곧 교만이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해결해주신다는 단순한 진리를 체험하게 된 귀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를 넘어 주님께 기도로 의지하며 준비했더니, 3남선교회 집사님들이 기도로써 함께해주셨고, 선교부 각 자치단체와 앙수집사회, 권사회에서 한뜻으로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사역을 위해 예비하신 대상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역자 보내주시고 모든 애로 해결해주세요

외국국적 사역자(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팔, 몽골)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어색했지만, 여러 활동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며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개강예배에서 영락교회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3박 4일 동안 나무엔 찬양사역자의 찬양집회, 호산나찬양대

의 앙상블 연주, 권혁일 목사님이 인도하신 영성수련집회, 마지막 날 찬양기도회를 통해 영적인 평안함을 얻고, 동영상 촬영 및 편집 프로그램 교육 등을 진행하여 사역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헤어지는 날, 모든 외국 국적 사역자들이 ‘사역하며 힘들 때마다 영락교회와 3남선교회의 헌신을 기억하며 힘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약한 저희를 통해 외국 국적 사역자들을 섬기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분들의 사역을 격려하시고 회복시켜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그 땅의 변화가 일어나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3박 4일 동안의 ‘인해선 선교봉사’가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 함께 동역해주신 3남선교회 집사님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여러 자치단체, 격려로 용기를 북돋아 주신 많은 믿음의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남**



오래된 담에 표정 넣기 하늘의 평안이 거기에

“벽화 그려주세요”… 무왕교회에서 날아온 요청

올해 초, 선교부로부터 양평에 있는 무왕교회와 인접한 창고의 낡은 벽화를 새로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제안받았다. 무왕교회와 주변의 사진을 보니, 잘 가꾸어진 나무들로 둘러싸인 자그마하고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벽화는 낡아서 금이 가고 여기저기 뜯겨 희미해져 있었다. 벽화 제작은 규모가 크기도 하고, 야외에서 실행하는 쉽지 않은 작업이기에 회원들과 의논한 결과, 교회에 활력을 주고 지역사회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좋은 시각적 방법이라 생각하여 요청을 받아들였다.

말씀과 그림의 어우러짐 … 화면엔 평화 가득

9월 11일 월요일, 영락미술인선교회 회원 5명과 선교부 임원이 벽화 밑작업을 위해 무왕교회를 1차 방문했다. 오전 7시 30분 문화선교부 황재영 목사님의 기도 후, 출발하여 9시 30분에 도착한 무왕교회에서 황윤선 담임목사님, 사모님, 성도들과 함께 벽화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날씨는 여전히 무더웠지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셔서 오전 내내 시원하게 바탕 고르기 작업을 할 수 있었다. 낡고 오래된 벽의 페인트를 제거해 보니 여기저기 금이 가있었다. 바람을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비닐로 감싼 창문 주변으로는 그림을 그릴 수 없었기 때문에 급히 합판과 재료를 구매해 와서 창문을 보완했다. 오랜 기간 습기를 먹어 군데 군데 시멘트가 떨어져 있던 흙벽의 표면을 보완하고, 벌어진 벽 틈새를 실리콘으로 말끔하게 메꾸는 등의 시멘트 작업을 전문가적인 솜씨로 진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사모님과 교회 권사님들이 준비한 점심에는 직접 재배한 무공해 나물이 어우러진 비빔밥에 시원한 열무김치를 얹어 식사하는 호사를 누렸다.

벽면이 너무 약하고 지저분하여 회원들은 밑칠용 흰색 페인트를 전체적으로 칠하여 보완한 후, 푸른 초원 위에 시원한 나무 그늘이 있고 양이 풀을 뜯으면서

쉬고 있는 평화로운 모습을 그렸다. 그림 중앙부의 팻말에는 시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서예 글씨로 넣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림과 함께 적힌 말씀을 보며 마음의 쉼을 얻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말씀만으로도 화면엔 평화가 가득한 것 같았다.



벽화 그리며 치유와 회복, 하나님 경험

9월 13일 수요일 새벽.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오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날씨를 검색하려고 핸드폰을 열자 무왕교회 황윤선 목사님의 카톡 사진이 와있었다. 벽에 비가림막을 예쁘게 둘러놓고 기다린다고 하셨다. 전날 저녁 비 예보를 듣고 예방 조치해놓았다고 하셨다. 이 소식을 회원들에게 전한 후,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7시 15분까지 이정희 권사, 이현주 집사, 전제범 집사, 송경희 권사, 유안미 권사, 최진희 권사 6명의 회원과 안자이 권사가 모여 이민하 집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벗속을 달려 무왕교회로 향했다.

무왕교회 성도들과 함께 수요예배를 드린 후, 벗줄기가 조금씩 굵어지는 중에도 비가림막에 부딪는 벗소리를 들으며 작업할 수 있었다. 벽화는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과정 중에 치유와 회복, 하나님 경험하는 귀한 사역이다. 교회 성도들도 함께 작업하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붓을 잡는 성도분들의 반응도 참 다양했다. 처음에는 “나 이런 거 못해. 한 번도 안 해봤어…” 주저하던 분들도 차츰 손수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나뭇잎을 색칠하며 “이게 참 재밌네~” 하신다. “나무 둑치에 껍질의 거친 표현도 할 거지요?” 하며 무늬를 손수 그리기도 했다. 그림이 완성되면 지나다니실 때마다 “이건 내가 칠한 나무여~” 하실 권사님의 모습이 눈에 훤히다. 벗줄기는 점점 더 세졌지만 우리는 열심을 멈추지 않았다.

점심으로 제공하신 시원한 열무냉면과 함께 비오는 날에 안성맞춤인 부침개, 직접 재배한 찐 땅콩이 맛있어서 자꾸만 손이 갔다. 점점 완성을 향해 가는 벽화를 보시고 기도 제목이 이뤄졌다며 기뻐하시는 사모님의 모습에 우리는 모두 더욱 힘을 얻었다. 무왕교회 맞은편에 있는 갤러리 카페에서 내려다보면 교회가 바로 정면에 보이는데, 새롭게 그려진 벽화가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구원받을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신다는 사모님의 말씀에, 누군가의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봉사를 사용하셨다고 생각하니, 웬지 더 겸허해지는 마음이 되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비로 인해 축축해진 옷을 입고 거의 7시간 정도 작업하니 온몸이 녹초가 되다시피 피곤했지만, 마음은 따뜻하고 훈훈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그려낸 그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쁜 하루였다. **만남**

영락미술인선교회는 영락교회 교인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시각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해마다 교회와 외부에서 정기전을 열고 있으며,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는 봉사를 하고 있다.

제공 영락미술인선교회



핍박 심해진 무슬림국 선교 성도들 응원 기도 절실

P국선교 13년차 하순종 선교사 가족

저희는 P국을 섬기는 하순종/하열매/축복/선물/기쁨/찬양 선교사 가정입니다. 처음 P국 땅을 밟았을 당시에는 저희 부부와 뱃속의 축복이만 있었는데, 약 12년이 지난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축복이 포함 아들 4명을 주셔서, 여섯 식구가 함께 그 땅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P국으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가장 낮은 곳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

P국은 전 세계 57개 무슬림 국가 중에서도 인도네시아에 이어 무슬림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약 2억 4천만 명(2023년도 기준) 중 97%가 이슬람 신자입니다. P국은 약 77개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100여 개 민족이 이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연합하여 한나라를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공식적

으로 현지 기독교인은 인구의 약 1.3%인 300만 명 정도로 집계되지만, 현지 교회 리더들의 자체 통계에 의하면 최소 600백만에서 1천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는 기독교인 비율을 높이고 싶지 않아 축소된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 견해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P국에는 상당한 규모의 기독교인이 교회를 세워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100여 개의 무슬림 민족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들의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대부분은 신분제인 카스트에서 규정한 제도의 어떤 계급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불가촉천민(不可觸賤民) 출신입니다. 과거에 사회적으로 차별받으며 살던 이들은, 18세기 영국 선교사들의 전도를 통해 한 형제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 그가 자신이 속한 종족(계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들이 집단으로 개종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들은 P국 기독교인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무슬림들에게 기독교인은 원래 계급상 자신들보다 더 천한 불가촉천민이었는데, 이제 기독교인까지 되면서 더 멀 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과 무시로 인해 P국 기독교인들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 어진 신성모독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법은 1980년 대에 강력한 이슬람 부흥 운동의 결과로 이 법에 두 가지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슬람 경전인 꾸란을 모독하면 종신형, 이슬람의 선지자인 무함마드를 모독하면 사형으로 처벌합니다. 이로 인해 현지 기독교인들은 더욱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으며, 출생 등을 통한 기독교인의 숫자는 늘어가지만, 실질적인 복음 전파를 기피하여 복음의 능력을 잃은 채, 자신의 신앙만을 지키며 가난 극복을 위해 생업에만 몰두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슬림국 복음화, 현지 청년 교육도 나서

저희 가정이 지향하는 주요 사역은 무슬림을 집중적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양육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P국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들 또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지 기독교인을 훈련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꿈도 비전도 없던 현지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심하며 선교 비전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소수지만 현지 기독교 청년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P국 내에서, 더 나아가 타국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청년들을 지켜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으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P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타국 청년 두 명이 ISIS(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의해 순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기독교인이 더욱 두려워하는 중에도 소수의 기독교 청년들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타국 선교사들이 자기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는 모습을 보며 구령의 열정에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로 시작한 전도 운동이 서서히 다른 기독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며, 수백 명이 전도하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흥이 P국을 뒤틀고 열방으로 퍼져갈 것으로 생각되던 2020년 말, 하나님께서는 현지 기독교 청년 1명의 순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린 두 딸이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훈련받으면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출근하기 전 매일 새벽에 한 두 시간씩 기도하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몇 시간씩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 부르짖던 청년이었습니다. 무슬림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데 따른 위험성으로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인해 혼들릴 때마다 이 청년은 기도하며 더욱 다짐했습니다. “나는 진리를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전도하던 어느 날, 평상시와 같이 공장에 새로 온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음 날 “알라는 위대하다” 외치며 달려든 그 동료의 칼에 맞아 사망함으로써 결국 그는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충격과 슬픔이 가득한 우리 모두에게 청년의 아버지는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 가정에 순교자의 영광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은 아들의 순교 피를 통해 P국에 부흥을 주실 것이다. 나도 부흥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것이다. 부흥!”

이 고백은 전도를 두려워했던 수많은 청년의 마음을 회개하게 했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기쁨으로 드리기로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순교한 형제의 아내도 두 딸과 함께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P국에는 백 명이 넘는 현지 크리스천 청년이 P국의 무슬림과 복음이 아직 증거되지 않은 열방에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무슬림이 복음에 반응하며 예배 모임에 나오고 있습니다. P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순교의 피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불태우고 신성모독 빌미로 고문

작년 여름, 너무 큰 홍수가 P국을 강타했습니다. 국토의 70%가 물에 잠기는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를

섬기며 이전에 단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숨겨져 있고 닫혀있던 지역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현지 교회와 세계 교회가 함께 이들을 섬기는 일에 동역하며 은혜의 소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주 전, 또다시 신성모독법을 이유로 무슬림들이 기독교 교회와 가옥을 무너뜨리고 불태우며 위협하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사단은 주님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을 너무도 싫어하여, 끊임 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위협하고 겁주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P국 교회는 이 어려움을 계속해서 직면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마다 새 힘과 새 마음을 부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끊임없이 함께 기도와 선교로 동역할 때, P국 교회는 더욱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만남**

소리선교회는 영락교회 선교부 소단체로 P국을 섬기는 하순종 선교사님을 포함해 10명의 평신도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 : 김은형·이진하·조지형 안수집사

하순종 선교사 _ P국

청년부, 복음 씨앗 뿌리기 뜨거웠던 3박 4일

1976년부터 매년 ‘한반도 복음 통일의 비전 아래, 7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청년부는, 올해도 어김없이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충남 보령시·부여군·청양군에서 국내선교를 수행했습니다. 이번 선교활동은 주제 말씀인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누가복음 10:37)를 따라 행진했습니다.

‘외산교회(본부교회)’를 비롯해 ‘거전교회, 규암호암교회, 청라중앙교회, 화산교회, 청라중앙교회’로 5개 교회가 참여한 이번 선교활동은 197명의 청년과 120명의 협력자(교역자, 멘토, 순회팀)로 구성되어, 총 317명이 선교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선교지에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며 더욱 은혜로운 안식일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간 하기선교를 위해 회장단과 지교회 팀장, 부팀장이 주축을 이루어 계획하고, 청년들이 복음 무언극, 찬양워십, 페인트, 미용, 농활 사역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협력팀(이·미용, 비파와 수금, 올드보이즈, 집중전도, 의료, 장수사진, 연장연마, 수송, 만나(식사) 등)도 다양한 사역을 함께 진행하며, 약 140여 명(집중 전도팀 기준)의 전도활동을 통해 풍성한 은혜의 복음 씨앗을 뿌리고 왔습니다.

하기선교를 통해 주님의 때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길 소망하며, 5개 교회에서 경험한 사역 나눔(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랑 전하러 갔다가 더 큰 사랑 받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청년부 하기선교 거전교회 선교팀의 전신호와 최성민입니다.

저희의 경험과 생각을 4가지 질문을 통해 공유하려 합니다.

Q 하기선교를 참여한 이유는?

성민 제 부모님이 영락교회 하기선교를 통해 만나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그 좋은 추억을 경험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신호 올해 5월에 영락교회에 등록하면 서, <청년부>라는 공동체에 스며들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서툴게 표현한 사랑도 진심이 전해지나요?

성민 농사활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 했어요. 처음 마을잔치에 초대했을 때는 주민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적극적으로 일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시간이 되면 가보겠다” 말씀하셨어요. 다음날 주민들이 마을잔치에 오셔서 저를 먼저 반갑게 맞아 주셨을 때, 진심으로 감동받았습니다.

신호 농사일을 통해 서툰 헌신을 보이는 제 노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농사 경험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보시기에 많이 서투를 텐데’ 걱정했습니다. 날씨는 매우 덥고 일은 고되었지만 불만 없이 헌신하는 저희 모두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민들과 팀원들이
함께 웃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던
그 순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최성민 성도_청년부



주님의 사랑을
늘 기쁨으로 느끼는
마음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신호 성도_청년부



Q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은? (감사와 찬양)

성민 마지막 날 마을잔치에서 워십팀으로 섬긴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교 준비부터 당일까지 연습하면서, 틀린 동작이 있어도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이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마을잔치에 참여하신 주민들과 팀원들이 함께 웃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던 그 순간이 무척 감사했습니다.

신호 두 번째 날 거전교회 주일 예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교회의 성도 수가 적은데도, 5명의 성가대원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분들의 찬양을 들으며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가 마치 천사들의 노래 같았습니다.

Q 하기선교를 다녀온 뒤 어떤 기대?

성민 어린 시절 친할머니 집에서 자주 들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은 저를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기선교를 다녀온 후, 매일 시간을 내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호 거전교회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21)”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하기선교 이후에도 주님의 사랑을 늘 기쁨으로 느끼는 마음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



규암호암교회

‘작은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하기선교 호암교회 선교팀원인 <꿈꾸는 땅> 김민지입니다. 이번 하기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을 간증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을 듣는 중에,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가지 않으려 했던 마음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하기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배정받은 팀원들을 처음 봤을 때, 익숙한 얼굴이 별로 없어서 옮기고 싶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 ‘부지기(?)’라는 역할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 하는 갈등에 훨씬였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제가

다른 팀으로 옮기는 것을 막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되는데 왜 나만 안돼?’ 하는 불만의 마음이 기도와 묵상 중에 ‘하나님이 이 팀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구나, 이 건 철저한 주님의 계획이겠다’ 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여한 하기선교

저는 팀의 디자인 홍보를 담당하게 되고 현수막, 전단지, 스티커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팀에 대한 애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팀의 분위기, 호암교회, 부여 마을에 대한 생각을 더욱 많이 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팀원들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마음으로 선교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땡볕 아래 시골예배당 가꾸기

특별히 주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일정이 참 은혜였습니다. 베다니홀처럼 웅장한 곳이 아닌 작은 예배당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서 느낀 따뜻함과 행복함은 기쁨이 넘치는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특히 찬양하는 동안 저를 비롯하여 많은 청년이 흘린 눈물이 모여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사랑으로 다가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었습니다.

폭염경보가 발효될 만큼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는데, 벽화팀에서 함께 일하며 거룩한 성전을 가꾸는 일도 선교의 일부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팀원들과 베테랑이신 집사님들은 모두 땀범벅이 되었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며 주어진 역할 이상으로 훌륭하게 해냈죠.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걸까?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을 선교 현장에서 보게 될 줄 몰랐어요’라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감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마을잔치! 저희의 우려와 달리 예상보다 많은 분이 참여하셔서 예배당이 꽉 채워졌고, 준비한 모든 공연을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예배당 안을 밟게 해드리고 싶다”던 집사님의 말씀이 참 지혜임을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기쁨과 환호 속에서 목사님 자녀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또 하나

의 열매를 바라보시며’ 찬양을 부를 땐 흐르는 눈물이 주체가 되지 않아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이것이 진정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임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요.

교회당 가득 메운 마을잔치의 깊은 울림

하나님께서는 이번 선교에서 저를 비롯하여 모든 팀원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가지고 있던 아픔과 상처, 공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고, 먼저 돌아간 팀원이 몇 명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참여한 짧은 시간동안 선교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역으로 피곤했던 일상에서도 절대 놓치지 않은 나눔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로 더욱 뭉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왜 저를 이 팀으로 보내셨는지 이해가 가요. 예전부터 알던 익숙한 공동체가 아닌 새로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셨으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지난해 하기 선교에서의 아쉬움마저도 완벽하게 채워 주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미션에 기대를 품고 행하는 믿음이 되길 결단합니다. **만남**



김민지 성도
청년부 꿈꾸는땅



시골 예배당과 피아노…하나님이 절 불렀죠

올해의 하기선교는 제 교회 생활이 더 깊은 신앙으로 전환되는 ‘벧엘’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반주자로 섬기고, 중국에서 하나님을 전한 경험도 있었지만, 대학 입시와 진로 선택과정에서 주님과 깊게 교제하는 소중한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 대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길을 따라 청년부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었고, 하기선교의 천국 잔치에 회장단으로 참여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다시 맺게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부교회에서 시작된 이번 하기선교에서는 현지 교회에서 주일예배 특송, 노인정 사역, 페인트 사역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팀원들과 따뜻한 교제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며 활동했던 것에 감사했습니다. 기념관 7, 8 층에서는 더위와의 싸움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복음 전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의 응원을 받으며 충남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조금 어수선했지만, 팀원들 간의 배려와 이해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며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오랜만이라 조금은 두렵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세워주신 ‘외산의 메아리’(찬양팀)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번 선교를 통해 기존 현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분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노인정과 마을 회관에서 네일아트, 수지침, 마스크팩 등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사랑은 저에게 오래도록 남을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대다수는 이미 교인이 셨고, 믿지 않는 분은 많지 않았지만, 이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곳곳에서 활약하시는 전도폭발팀의 열정적인 활동을 보며 감동했고, 청년들이 충남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퍼트리는 모습에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장수 사진을 찍기 위해 메이크업을 받으시는 분들의 빛나는 미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고 뿌듯했습니다. 저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 생각하니 감격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하기선교를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함께한 모든 분과 소중한 시간을 꾸릴 수 있었던 것 또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께, 하기선교의 매력적인 특별함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두가 함께 느끼고 기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만남**



김은영 성도
청년부 주는나무



공동체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얼굴

오랜 기간 무기력한 일상에 지쳐 있었습니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평가에 나를 맞추다 보니, 저의 모습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태도에 삶의 목적과 방향이 흔들렸고 어느 새 나의 존재에 대한 물음표가 가득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방향에 대한 고민이 늘어날 즈음, 청년부 하기 선교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작은 불안함도 놓치지 않은 주님

처음 참여한 청라중앙교회 팀에는 낯선 사람뿐이었습니다. 잘 긴장하는 성격 탓에 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서기를 맡았습니다. 문서 작업은 평소에도 직업상 익숙한 일이었기에 이 정도 뜯으면 사람들

눈에 띠지 않고 조용히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저의 작은 불안한 마음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사역을 준비하는 동안,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던 팀원들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가진 달란트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회의 때마다 항상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팀원, 특유의 긍정적 힘으로 공동체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팀원, 회계 처리를 오차 없이 빠르게 해내는 꼼꼼한 성격의 팀원, 소외되는 구성원이 없도록 알맞은 역할로 참여할 수 있게 세워주는 팀원까지…, 모두가 각자 가진 달란트로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고 귀하게 사용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공동체 속에서 ‘나의 존재와 쓰임에 대해서’ 도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회의록이나 문서가 팀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전체에게 배포할 문서를 정돈된 언어로 정리할 때나 서로의 이름을 빠르게 외우기 위해 만든 명찰을 착용한 팀원들의 모습을 보면, 저의 달란트도 소중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깊어지는 선한 공동체를 보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 ‘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사람이구나’라며 잊고 있었던 감사를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저를 사용하십니다

하기 선교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도 제 앞에 놓인 상황들은 그리 달라진 것은 없지만 상황을 보는 관점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계획에 저를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타인과 세상을 의식하고

인정받으려 발버둥 쳤던 저의 삶의 태도로부터 구원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여름, 충남 청라에서의 함께 섬긴 팀원들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한 선교활동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사는 동안 저를 흔드는 상황과 마음이 다시 생긴다 해도, 청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단단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성도분들께도 제가 만난 하나님과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날]**



박예은 성도
청년부 꿈꾸는땅



순간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 보게 된 순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다짐한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직접 실천하기란 너무 어려웠기에 '정말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일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하기 선교를 준비하던 어느 날, 우연히 처음 만난 분과 하루를 함께 보낼 일이 있어서 온 종일 1분 1초도 쉬지 않는 그

분의 일상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다.

'저분은 언제 휴식을 취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분은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 온종일 정신 없이 움직였다. 이리저리 불러 다니며, 또 자처하여 힘들어 보이는 일을 모두 혼자 도맡아 처리하면서도 지친 기색 없이 오히려 즐거워 보여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집으

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그분의 따뜻한 현신이 바로 예수 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 바람이 부는 순간

나는 전도가 가장 어렵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하기 선교지에서도 전도를 피하려고 이리저리 도망다녔지만, 결국 전도 팀장님의 강한 권유로 전도를 나갔다. 현성, 민지 언니와 한 팀이 되어 마을 이곳저곳을 찾아다녔다(시키면 또 열심히 하긴 한다!). 그렇게 돌아다니는 중에 농사일을 하시는 어르신을 만났다.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주신 어르신 덕분에 우리는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었다. 할머니는 지금까지의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지나가 버린 것만 같아 슬프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황급히 전도용 팔찌를 꺼내 외워 뒀던 구슬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영접기도도 나누었더니,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다. 한번도 교회에 가보신 경험이 없었던 할머니가 어려운 영접기도를 어떻게 이해하시고 눈물을 보이신 반응이 무척 놀라웠다. “아멘”과 함께 우리는 기도를 마무리하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게도, “아멘”하는 순간 뜨거웠던 햇살이 사라지며 그늘 막이 생기더니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우리가 쉬는 시간에 딱 맞춰 바람이 부네”라고 작게 말씀하셨다.

세 번째, 인간의 순간

사역 항목을 선택할 때, 모든 항목을 선택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저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곳이기를 원했다. 그런데 연극 사역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생활 연기도 어려워하는데 연극이라니…, 당장이라도 다른 사역으로 피해야 할지 고민이 됐다. 인원 모집, 연극 선정 등



뭐 하나 쉬운 일이 없었다. 팀원들과도 서먹서먹하여 정말 난감했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매일매일 연극조를 위해 기도했다.

마을 잔칫날이 다가왔다. 걱정과는 달리, 연극을 준비하는 두 달 동안 팀원들은 서로에게 많이 의지했고, 많이 노력했다. 연습 때문에 무릎에 온통 멍이 들어 걷기에 힘들어도 연습을 쉬지 않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다. 그리하여 어르신들께도 우리의 노력과 감동을 잘 전달할 수 있었다. 연극이 끝난 후, 울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어르신들의 마음이 너무 크게 느껴졌다. 지금 생각해도 함께 연극을 한 형제자매들과 지난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마운 마음이 크다! **안녕**



임예원 성도
청년부 꿈꾸는땅



원팀, 원골…하나됨 배운 축구캠프 속초 3박4일 축구교실

올해로 21회를 맞이한 ‘영락교회 축구교실 여름캠프’가 지난 8월 15일 화요일부터 8월 18일 금요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영락교회 설악산 수양관과 속초공설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관심도 많은 두 아들을 참가시키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남편과 함께 생활부 봉사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제가 맡은 역할은 10끼의 식사와 간식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4인 가족의 식사만 준비하다가 60인분의 식사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함께하셨던 권사님들께서 올해는 함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큰일 났다’라는 생각으로 눈앞이 캄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되게 훈련하고 돌아온 아이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있는 한끼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60인분의 10끼 식단을 계획하고 양에 맞게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부담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끼 니마다 “오늘은 뭐 먹어요?”라고 물어보며 남김없이 쑥 쑥 잘 먹어주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맛있어요, 더 주세요”라고 말하는 아이들 덕분에 지치지 않고 10끼 식사의 미션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경력이 부족한 저희 세 명의 여 집사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걱정하며 가기 전부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중간에 간식도 보내주시고, 직접 방문해서 응원해 주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끼 60인분 미션 수행하며 큰 보람

코로나 기간 2년을 제외하고 2000년도부터 해마다 열려 올해로 21번째인 축구캠프에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봉사자로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축구교실과 축구캠프,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우리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점이었습니다. 넓은 잔디밭에서 친구, 형, 동생들과 마음껏 뛰놀며 실컷 축구할 수 있고, 함께



안태정 집사
강서·구로·양천교구



어울려 배우며 훈련하고, 시합하는 등 공기 좋은 속초 수양관에서 함께 먹고, 놀고, 웃고, 자는 3박 4일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경험에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느낄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에 돌아와서 감독님이 보내주신 사진과 동영상 을 찬찬히 보았는데, 우리 아이들 표정이 해맑고 즐거워 보여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또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하고 세세하며 다양한 준비 와 진행에 감사했습니다. 21년째 묵묵히 준비와 진행을 해오신 김형태 감독님, 캠프기간 중에도 신장 투석을 위해 병원을 다니면서 캠프를 지켜주신 유영빈 감독님, 축구교실을 졸업하고 후배들을 위해 지도교사로 봉사하는 대학부와 청년부 선배들, 20년 동안 한결같이 순종과 기쁨으로 주방봉사해주신 권사님들!! 이들의 사랑과 헌신 덕분에 공동체 “One Team”이 형성되어 축구 캠프가 20년 이상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감독·스태프·봉사자들 순종과 헌신

이번 축구캠프는 “One Team, One Spirit, One Goal”이라는 주제로 학생 38명과 스텝 16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축구캠프에서는 축구 기술 뿐 아니라 신발 정리, 인사하기, 음식 골고루 먹고 남기지 않기 등의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익히고, 단체생활에서 규율을 지키며 협동과 봉사 정신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러한 지도와 지원 덕분에 참가 학생들은 체력훈련, 기술훈련, 리더십 훈련, 영성훈련을 받으며 유익한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훈련, 경기, 그리고 조별 생활을 통해 하나의 팀, 하나의 정신, 하나의 목표로 생활하도록 노력했던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 씨앗’이 잘 심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씨앗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길 소망합니다.

피곤하지도 않은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들리지 않니? 내 심장이 뛰는 소리, 쿵쾅쿵쾅쿵쾅~” 찬양을 떼창 하던 아이들을 보면서 마치 부흥회가 열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친구들을 사귀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참 귀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만 좀 불러, 자는 사람 있다고!!!”라는 핀잔을 듣는 것 같긴 했지만요^^;

“이런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구나” 느껴

이 모든 일은 함께 참여한 분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입니다. 신주현 목사님과 세 분의 전도사님, 두 분의 감독님, 대학생 스텝들, 사진 집사님, 전우애를 다지며 식사를 준비했던 집사님들, 아이들 빨래와 건조, 각종 뒷일을 도맡아 애써 주셨던 집사님들. 모두 모두 애쓰신 덕분에 즐겁게 봉사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토요일 대광고등학교에서 축구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모여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연례행사인 축구캠프를 기대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구교실이 더 많이 알려져서 더욱 찐한 ‘One Team’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락교회 축구교실, 파이팅!! **만날**

겸손 일깨워준 순회연주 가족과 함께해 은혜 더 컸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갈보리찬양대에 입대한지 벌써 4년이 가까워 온다. 입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가 시작되어 모두 모이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다. 또한 내가 속한 직장이 장애인 시설인 관계로 관리가 엄격하여 얼마간은 집에서 예배드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찬양과 요한수난곡 공연, 극동방송 대합창제 등 다양한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신입대원 넉넉히 품어주는 갈보리찬양대

갈보리찬양대는 지휘자 박신화 장로님과 반주자 권사님에게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온화한 지도력을 기반으로, 찬양대원의 내공, 솔리스트의 역량, 임역원분들의 헌신이 모아져 사명을 든든히 감당하고 있다. 입대 초에 느낀 점은, 찬양대 안에 한 교회의 모든 기능이 갖추어 있다는 것이다. 주 사명인 찬양 이외에도 신앙부, 예배부, 음악부 등 교회 내 자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또한 신입조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면 공고함이 있는 오랜 조직 기반이어도 초기 적응이

수월하면서도 서로 다독일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매 주일 함께 찬양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갈보리찬양대 50주년’을 맞이하여 반백 년의 기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순회연주에 동참하게 되었다. 미국 카네기홀에 서지 않기로 한 결정은 내심 아쉬움이 남았지만, 지방의 여러 교회에서 많은 성도와 함께한다는 것이 또 다른 뜻깊은 선택이라 생각되었다. 더하여 감사했던 것은, 순회연주에 가족이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편찮은 어머니, 사춘기 큰아들…온가족 동행

나에게 가족동행이 특별히 중요했던 여유 이유 중 하나는 아프신 어머니와 자녀들로 인해서였다. 1박 2일 출장이나 남편과의 원거리 등산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는 있었지만, 3박 4일을 비운다는 것은 내심 큰 부담이었다. 살림해주시는 어머니께 가장 죄송하고, 코로나 이후 제대로 된 가족 휴가를 고려하던 상황에서 여름휴가를 나 혼자만의 일정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편치 않았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고등학교 들어서며 늦은 사춘기를 맞은 큰아들 때문이었다. 감사하게도 본래의 온순함을 유지하며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신앙적으로 회의감을 가지면서 거리를 두는 모습은 지난 1년 반 동안 가장 마음 무거운 기도 제목이었다. 그래서 아들을 예배와 찬양의 자리에 있게 하고 싶었다. 무엇보다 마음이 열리는 여행에 동행하며 엄마가 참여하는 찬양연주회를 3일 연속 자연스럽게 관람하는 것이 중요



장보석 성도
서초교구
갈보리찬양대 소프라노



한 계기가 될 것 같았다. 막내아들은 본인의 여행비용을 치킨 수로 환산하면서 가지 않을 방도를 찾기도 했지만, 단번에 함께하겠다고 한 남편과 언제나 협조적인 큰딸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두 아들을 설득한 덕분에 학교에 3일 현장체험 신청서를 제출하여 드디어 찬양연주회 겸 가족여행길에 올랐다.

준비과정부터 찬양을 위해 무대에 서 있는 동안 ‘어머님의 영육 간 치유와 소생, 큰아들의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듣는 모든 이를 축복하셔서 아픔을 치료하시며, 고통과 억울함이 있다면 풀어주시기를 위해,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사랑하는 남편과 딸, 막내아들이 주께 귀히 쓰임 받는 자녀로서 기도를 위해 기도했다.

3박 4일 ‘선율있는 기도’… 홀로 영광 받으소서

3박 4일간의 은혜로운 여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때의 찬양과 기도를 어떻게 받으시고 언제 열매를 맺게 하실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대원이 ‘온 마음과 정성, 그리고 힘을 다해 올려드린 선율 있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우리의 중심을 아

시고 응답하실 것이라 믿는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 자체가 은혜이며 축복임을 안다. 주의 자녀를 여러 모양으로 택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찬양자와 예배자로 부르셨음에 감사드린다. 찬양대원으로 서지 않더라도 찬양과 예배는 성도의 존재 이유인데, 정확히 지목하셔서 세우셨음에 어떻게 화답해야 할까.

‘겸손’이란 단어와 말씀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되뇌어진다. ‘겸손’은 진정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습인 것 같다. 그것이 결핍되어 있다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를 드러내기는 커녕 육보이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하시는 것만 같다. 지금은 4년 차 신입 대원이지만, 15년이 되고 30년이 된다 해도,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흘러 어느 곳에 있어도, 순전한 맘으로 주를 높이고 겸손한 미소로 이웃을 대하는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 부족하나마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다. **안남**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나의 하나님

인생에서 쓴맛을 맛본 경험이 있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후, 3일 길을 물 한방울 없이 힘들게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마라’ 지역에 도착했을 때, 마침내 물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물은 너무 썩어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불만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제 삶의 여정에서 경험한 ‘마라의 쓴맛’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최에녹 전도사
강동·송파교구
청년부

군 복무중 불의의 허리 마비 … 좌절의 나락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2교구 강동·송파교구와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최에녹 전도사입니다. 목회자 자녀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저는 교회를 개척하신 부모님의 목회와 신앙교육을 받으며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늘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과 문제들에 직면한 중에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신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을 가까이에서 보고 배우며 성장했지요. 부모님의 신앙교육과 훈련은 저에게 있어서 언제나 큰 가르침과 밑거름이 되었고,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둥과도 같은 힘이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학사장교 준비를 꿈꾸며 군입대를 준비했으나, 갑작스럽게 진로를 바꾸어 일반 병사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 조금 늦은 감이 있었지만, 이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때의 선택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습니다.

입대 후 일병이 된 어느 날 아침. 기상 소리에 맞춰 일어났는데 갑작스럽게 허리 통증과 마비 증상으로 침상에서 ‘쿵’하는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잠이 덜 깐 것인가? 꿈이겠지?’ 라며 믿고 싶었지만, 주변에서 놀란 표정과 걱정의 눈빛으로 저에게 다가와서 도와줬을 때, 그제야 꿈이 아닌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되어 주변의 도움 없이는 지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몇 달간 지속되는 차가운 병상 생활에 지쳐가고, 입술의 고백은 절망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자신이 너무나도 싫고 무기력하기만 했죠. 더 이상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은 채 소망과 비전이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한 지인들에게 이 상황을 알릴 수 없어서, 혼자서 외롭게 묵묵히 견디며 참았습니다. 육신과 마음이 지치고 고통이 커져만 갈 때, 마치 광야의 길을 걸으며 쓴맛을 경험하는 것처럼 병상의 시간은 너무나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불과 3일 전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게 된 것처럼, 저도 지난날의 은혜와 감사를 모두 잊어버리고, 현실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무심코 펼친 찬송가 370장 '주안에 있는 나에게'

마침 그때, 제 옆에 성경책과 찬송가가 놓여 있었는데 무심코 펼쳤던 찬송가 가사에 하염없이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은 바로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는데요. 이 찬송가의 가사와 곡조가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따스함으로 밀려오며 저를 휘감았고, 지난날 저의 잘못된 모습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했던 태도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저는 용서를 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그 후로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말씀 묵상하고 눈물 흘리며 찬송가 370장 가사를 기도제목으로 삼고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단물과도 같은 말씀과 찬양, 기도로 저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 고쳐 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지난날의 부끄러운 모습과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깨달으며 찬송가의 가사만 읽고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4) 내 주와 맷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혐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치유와 회복의 은혜 … 목회자의 길 열어주셨죠

진정한 회개 이후에 놀랍게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치유와 회복이 일

어난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 한 사람이며 죄인이었으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병상에 누워 아파하며 어둠 속에 있는 저에게 따뜻 함과 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제 마른 심령과 육신을 놀랍게 치유해주셨고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로인해 허리와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며 점점 걸을 수 있게 되어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군생활도 무사히 마치고, 이제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두 발로 건강하게 걸을 수 있게 하시고 힘차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아무리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답답할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제 곁에 계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나의 사정을 아시며 지금도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요.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으며 제 안에, 제 옆에 늘 함께하셨습니다.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셔서 영락교회의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것에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셨고 사랑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치료해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주시고 만나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만날**

황광성 은퇴장로 별세, 교회장으로 엄수

황광성 은퇴장로가 9월 11일(월) 별세했다. 향년 75세. 1948년 서울에서 출생한 고인은 3대째 신앙을 지켜오며 신실한 신앙심으로 사회에서는 경영인으로, 교회에서는 복음통일을 위해 탈북 자유인을 돌보며 20여 년간 북한선교에 전심전력을 다하셨다. 고인은 2000년 선교부 실행위원, 예산위원회를 거쳐 2006년 집사 안수를 받은 후, 선교부 차장, 북한선교부 차장, 자유인예배 교사, 사회부 지도위원, 청년부 교사, 자유인예배 부장, 북한선교부 정책자문회 위원을 맡았다. 2014년 12월 42기 시무장로로 장립되어 영락공원묘원 이사, 뉴코리아국제학교 교장, 북한선교부 부장,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이사, 북한선교부

정책자문위원장을 역임하며 2019년 12월까지 시무장로로 섬기셨다. 장례예식은 교회장으로 9월 14일(목) 오전 8시30분 본당에서 김운성 위임목사 집례로 남정일 목사 인도, 정천우 장로 기도, 김의환 은퇴장로가 고인을 추모하는 조사, 위임목사의 축도로 진행되었다. 이어 장지인 영락공원묘원에서 남정열 목사의 집례로 하관예식이 있었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구성숙 권사와 규택, 규도 2남을 두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故황광성 장로님의 소중한 삶

“북한선교 걱정 놓으시고 천국의 위로 임하길...”

75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황광성 장로님은 하나님 말씀 따라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진심으로 섬기셨습니다. 2023년 9월 11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난날의 고통과 수고를 잊으시고 편안하게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속에서 장로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부르심을 받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황 장로님과 저는 1948년 같은 해에 태어나, 영락교회에서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여러 분야에서 섬기셨는데, 특히 자유인 예배, NK국제학교, 나아가 북한선교부에서 20여 년 동안 헌신적으로 섬기셨습니다. 은퇴한 후에도, 저와 함께 9분의 은퇴장로 소그룹을 만들 어 당회와 교역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일을 이어 가셨습니다.



장로님은 세련되고 매너 있는 국제적인 신사이며 젠틀맨이었습니다. 서울 태생으로 3대째 이어진 신앙의 전통 아래에서 성장하셨고, 교회에 대한 사랑은 정말 깊으셨습니다. 아내분인 구성숙 권사님은 교회와 가정에서는 긍정적이고 덕 있는 말씀만 하시며, 부정적인 것에는 그 선을 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장로님은 1970년대 교회의 부흥 시기와 함께 하며 반석 같은 삶의 터에 기초를 다지셨습니다. 일상에서는 <경용기계주식회사>를 운영하며, 해외로 휴지 제조 기계를 수출하시면서도, 회사의 모든 일을 기도와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전 사원이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일을 마치는 하루 일과와 정기적인 월례 예배로 ‘전 사원 신자화 운동’을 펼치셨습니다. 나그네 여성에서 IMF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황 장로님은 기도를 통해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셨고, 그중 상당부분을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제가 선교부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 황 장로님은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선교에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교사, 부감, NK국제학교장, 부장을 맡아 전적으로 혼신봉사하시면서 북한 선교의 발전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북한 선교 20주년 총람>을 발행하셨고, 이를 통해 우리교회와 한국교회의 선교 사역중, 자유인 선교에 대한 매뉴얼 교본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또한, 장로님은 중국을 통해 한국에 온 탈북자들을 위해 연인원 40여 명 이상을 장로님 댁으로 초청하여 접대하셨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성도로 교제하셨습니다. 이들에게 피아노를 선물하

시며 주의 사랑을 나누셨고, 때로는 경제적인 도움도 주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시련도 있었습니다.

황 장로님은 미국 UCLA대학교에서 열린 국제 평화 컨퍼런스에 참석하셨습니다. 세계 각국의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 전문가가 모였던 자리에서, 장로님은 탈북한 자유인들의 일상을 소개했습니다. 장로님의 발표는 이론보다는 현실에 중점을 둔 것이었기에, 참석자들은 매우 감동받았습니다. 그 결과, 포럼은 이론을 넘어 실제적 결론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모두가 황 장로님의 생생한 발표에 몰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로목사님께서는 컨퍼런스 때 여러 전문가가 있었음에도, 삶의 고통의 현장을 보고한 황 장로님의 발표가 가장 설득력 있어 Best Speaker가 되셨고, 그 이유는 황 장로님의 진실한 신앙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한 것이라고 장례위로예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75년 동안 많은 것을 겪으신 황 장로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셨습니다. 우리는 매우 슬프지만 부활의 믿음으로 위로를 받으며, 세상의 걱정을 놓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황 장로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기도를 통한 영적인 소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말씀처럼, 황광성 장로님의 믿음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고 온유한 삶을 본 받아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와 함께하시기를 조사로 가름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영락교회 믿음의 형제 김의환 장로 드림

故김성보 집사님 아름다운 삶

“당신의 ‘거룩한 기록’ 저희가 이어 쓰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 1:3)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로 그려집니다. 굳은 사명과 명확한 비전을 품은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굳은 신념과 이끄심이 고 김성보 집사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시간의 기록이 그를 고귀한 사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정신이 교회를 보존하고 살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고 김성보 집사님의 행적을 보면, 교회의 역사적 기록과 보존 그리고 계승함을 중심으로 그의 삶이 훌륭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진실함과 성실함은 시간을 견뎌내며, 기록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나이테가 그 나무의 이야기를 담듯, 김성보 집사님의 마음에는 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실을 살면서도 빛바랜 사진을 소중히 간직하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교회의 희망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양지보다는 그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묵묵히 노력하셨던 그의 무명의 노력은 영원히 교회의 곳곳에서 기억될 것입니다. 빠름보다는 느림을, 큰 것보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버려진 작은 사진 한 장에도 그 안에 담긴 귀중한 이야기를 찾아내곤 했던 그의 작품은 과거의 흔적, 그리고 그의 삶의 거울이었습니다. 집사님의 손때 묻은 오랜 사진이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지나온 역사의 기쁨과 슬픔, 그 어떤 순간에도 김성보 집사님은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그의 한결같은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고, 그의 이야기는 정직한 기록이 되어 후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력서는 발과 신발이 걸어온 기록, 그래서 삶의 흔적을 족적이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홍보출판부의 문을 여신 힘든 발걸음이 바로 홍보출판부의 정신이며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는 많은 기록을 남겼지만, 자신의 기록은 남기지 않고 떠나셨습니다. 고 김성보 집사님! 당신의 거룩한 기록, 저희가 소중히 이어가겠습니다.

김태영 장로_고양·파주교구, 홍보출판부부장

“집사님이 베푸신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김성보 은퇴안수집사(홍보출판부 자문위원)가 향년 82세로 9월 15일(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갑작스레 부고를 접하니 너무 황망하기만 합니다. 올해로 창간 50년을 맞은 ‘만남’을 위해 홍보출판부 편집 간사를 시작으로 평생을 현신하셨습니다. 집사님께서는 한경직 목사님과 같은 평복 선천 출신으로 한 목사님 곁에서 신앙교육도 받고 교회일을 도왔으며 “김 집사는 교회 역사를 기록하라”고 한 말씀을 평생 마음에 두어 ‘만남’의 반석을 다지며 교회 사랑을 펼치셨습니다. 집사님의 현신을 통해 오늘날 ‘만남’의 역할인 문서 선교의 밑거름이 되었지요. 그리고 은퇴 후 우리 교회의 오랜 역사와 사진들을 모아 111건을 역사자료실에 기증하기도 하셨습니다.

“글 잘 쓰고 있어 김 권사!”, “아니 예요, 이제 그만 할래요. 너무 힘들어요”라고 특정하는 저에게 수첩 속에 한 목사님 친필 “네가 어디 있느냐”를 내 보이시며 “허튼 소리 말라우~ 선임 기자로서 책임을 다하라”, 약하지 말고 강하라며 채근하셨고, 또 언젠가는 제 편을 들어 주셔서 큰 힘을 얻었던 때도 기억이 납니다. 만남지 독자를 위한 따끔한 지적과 조언을 이제는 어디서 구해야 할지요? 이젠 그 음성도, 사무실 곳곳에 많은 흔적들도. 안 계신 빈자리가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해가 가며 다리에 힘이 빠져 지팡이에 의지하여 봉사관 5층 사무실에 오시곤 하셨는데 따뜻하게 반기지 못했던 그 때가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별세 이틀 전 수요일에도 마지막을 예고하신 듯 들르셨고 옆 사무실 역사자료실에도 들러 가셨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빈소에서 들으니 교회 다녀오시고 이틀 후 주무시다 가시는 복된 죽음을 맞이하셨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인간적인 슬픔과 아쉬움으로 마음은 아프지만 병석에 눕지 않으시고 고통 없이 편안히 하나님 곁에 가셨네요. 이제 김 집사님은 교회 사랑과 역사 기록에 대한 열정을 남기고 하나님 곁에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 후배들은 그 선교 사명 잘 이어가며 주님의 일에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베푸신 그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김성보 안수집사님! 천국에서 평안히 안식하세요.

김경옥 권사_용인·화성교구, 홍보출판부 선임기자



한글 400년 긴 잠 기독교가 깨웠다

오늘날 한글 없었으면 얼마나 불편할까

한글날을 맞이하면서, 첨단기술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읽고, 쓰고, 자판기에 입력하는 한글이 없었다면 어떤 생활을 하게 되었을지 생각해 본다. 과연 어떤 문자를 사용하고 있을까? 아마도 한자로, 아니면 베트남어처럼 로마자로 표현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볼수록 한글의 중요성과 편리함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쉽고 우수한 한글을 쓰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

한글의 우수성은 현대의 다양한 분석과 실험으로 증명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첨단 정보통신시대에 한국이 강국으로 우뚝 서는 데는 무엇보다 한글이라는 우수한 문자의 사용이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 예로 다양한 언어의 컴퓨터 자판 입력 속도를 비교하는 실험에서 한글이 다른 문자들에 비해 가장 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사희 교수
미국 미들베리대학 언어학·한국어
산호제 임마누엘장로교회 집사



1911년 간행된 한글성경 “성경전서”

사진 대한성서공회

1911년 첫 한글성경, 한글의 가치 다시금 확인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고,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존경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한글이 오랫동안 잊혀진 시기가 있었음을 잘 모른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하신 1466년 이후로 400여 년간 한글은 잠들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의 명맥을 가느다랗게나마 유지한 사람들은 지식층이나 지배층이 아닌 서민과 여성이었다.

또한 잠자던 한글을 확실히 깨우게 된 일은 19세기 말 성경의 한글 번역이었다. 유럽과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한국인들과 함께 노력하여 시작한 성경 번역은 18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1911년에 ‘구약 전서’와 ‘신약전서’, 신구약을 합친 ‘성경전서’로 출간되며 우리에게 한글의 가치를 다시금 각인시켰다.

한글 보급, 민족복음화 … 서로에게 ‘윈윈’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지 400여 년이 지난 뒤, 성경을 통해서 한글의 뛰어난 전달 기능이 선보이게 되었다. 그 결과, 당시 조선의 사람들은 생활언어를 사용해 기독교의 새로운 사고방식과 원리를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번역 작업을 통해 아마도 한글 창제 이후 가장 다양한 어휘와 문장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은 당시 조선인에게 한글의 무한한 표현력을 다시금 확인시키는 기회가 됐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조선의 봉건사상과 대립하는 기독교 원리인 사랑과 화평의 개념을 한글 창제 후 처음으로 다양한 어휘와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많은 학자가 이야기한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로, 평등한 존재로 표현하여 인간의 가치를 강조했는데, 이 내용은 봉건적 신분제와 맞서는 혁신적 개념을 한글로 표현한 최초의 사건이었을 것이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동기는 성경의 핵심 개념인 ‘사랑’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훈민정음 서문에서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한 애민정신, 다시 말해 문자생활을 못하는 백성을 가엾게 여겨서 새로운 문자를 창제한다고 명시하였다. 한자가 공식 문자로 사용되던 시대에 백성들에게 매일 쓰는 말과 일치하는 글자를 주기 위해서였다.

세종의 애민과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기의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나날이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훈민정음 서문 현대어 역문).”

이 서문은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잘 표현했다고 본다. 예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복음서에 자주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런 세종의 애민정신과 통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백여 년 전에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되면서 이루어진 한글 성경 번역은 잠자고 있던 위대한 한글의 가치를 다시금 부각시켰다. 이를 생각하며 우리 기독교인은 21세기의 교회에서 물질적 성장 속에 잠자고 있는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새롭게 성찰하고 깨우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 577돌 한글날을 맞아, 이러한 각오와 결의를 다짐해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만남**



비혼 출산을 지원하자고? 가정 해체하는 ‘입법 폭력’



인간이 동물과 달리 존엄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형상은 우리의 인격을 통해 나타난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짹지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안에서 자녀를 갖는 질서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질서대로 살면,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아끼는 우리를 위해 정한 가장 안전한 규칙이다. 사탄은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가정을 겨냥한다.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선물로 준 가정의 질서를 깨트리려는 이런 도전은 점점 드세지고 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잠언 1:33)

창조질서 거스르고 반헌법적인 입법시도

2023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민정, 양정숙, 황운하, 양이원영, 문정복, 최강욱, 이수진, 김의겸, 권인숙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중에는 교회를 대적하는 차별금지법과 낙태 허용법을 발의

하여 주목받았던 의원들도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생식술(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통해 ① 결혼하지 않은 여성도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② 출산율을 높이고, ③ 결혼하지 않은 여성도 혼자서 가족을 구성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현재 모자보건법에서는 “피임을 하지 않는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해도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를 난임이라고 하며, 난임 부부를 위한 의학적 도움을 ‘보조생식술’로 정의하고 있다. 보조생식술에는 시험관 아이로 알려진 ‘체외수정’과 정자를 여성의 자궁에 주입하는 ‘인공수정’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는 난임부부의 행복한 가정을 위한 방법



이명진 성도
안양·수원교구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운영위원장

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대로 시행된다면 인간의 번식 과정을 동물의 번식 방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꼴이 되어버린다. 동물의 번식을 위해 수컷의 우수한 정자를 여러 암컷 동물에게 수정하는 번식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건강한 가정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 36조 1항에 따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반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하는 가정의 개념을 해체하는 발상이다. 결론적으로, 이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와 충돌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비혼 출산과 관련된 부작용

1) 우생학과의 연관성

보조생식술은 시행 단계에서부터 우생학이 개입하기 시작한다. 내가 원하는 외모와 성별, 피부색 등 특정한 특징을 가진 아이를 낳기 위해 정자와 난자를 선택하여 매매할 수 있다. 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염색체 이상이 있거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별인 경우 수정란을 배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2) 유전병과의 관련성

비혼 출산에 따른 정자 제공이 같은 지역 내에서 집중될 경우, 비슷한 외모와 유전적 특징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다. 정신질환을 앓는 자가 병력과 학력 등을 속이고 정자를 제공하기도 했다. 비혼 출산을 허용한 일부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들이다. 또한 이런 상황은 비혼 출산으로 탄생한 아이가 성장하여 자신과 같은 유전

동물의 번식 기술 어떻게 인간에게 쓰나
난임부부에게 행복한 가정위한 선물 그려야
혼외 임신 부추기고 동성혼 허용 촉발할 수도
맞춤아기·근친혼 등 비윤리 어떡할건가

자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근친혼의 위험성과 관련된 유전병 발생의 우려를 가져올 수 있다.

3) 동성 커플 자녀와 심리 정서적 문제

비혼 출산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는 생물학적 부모와 함께 자라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동성 커플의 아이의 경우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을 느낄 수 있다.

4) 아이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우려

비혼 출산으로 아이를 낳은 자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거나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등 개인적 상황이 변화된 경우, 정신적으로 피곤하여 아이를 유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아이의 인권과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5) 의료 윤리와의 충돌

개정안은 의료인에게 특정한 보조생식술을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일부 의료인들의 윤리적, 종교적 신념과 충돌할 수 있다. 인간의 왜곡된 탐욕을 법안에 담아 강제하는 것은 법에 의한 폭력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의료인들의 자율성과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반성경적 입법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마태복음 19:4~5)

보조생식술은 난임을 겪는 부부를 도와주는 의료적 방법이다. 그러나 개정안의 방향성은 윤리적 기준을 벗어나, 보조생식술이 주는 유익을 해악으로 바꾸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정자은행을 통해 정자를 공급 받아 동물의 번식처럼 아이를 생산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반성경적 범죄 행위다.

모든 의·과학 기술은 반드시 윤리기준을 따라 시행해야 한다. 단순히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실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을 가진 특별한 존재이기에, 생명에 대한 존중과 책임이 필요하다. 모든 행위에는 의도, 방법(행위), 그리고 결과, 이 세 가지의 모든 요소가 바람직해야 한다. 개정안이 추구하는 방향은 기존의 의료적 목적에서 벗어나, 가정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한 부부에게 적용해야 할 의술을 남용하는 행위다. 잘못된 방법으로 의술을 사용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윤리적 기준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가 해야 할 일

가정은 우리 후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터전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의 중요성,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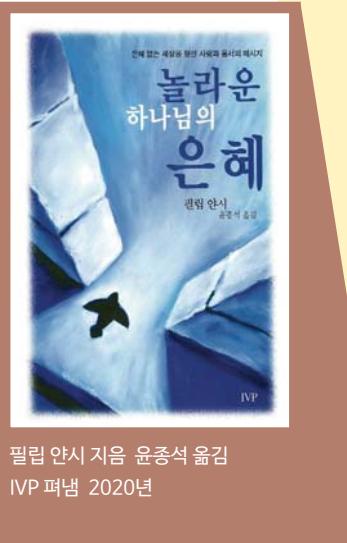
성함과 따뜻함을 무시하고 동물의 번식 수준으로 추락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법안의 발효를 막기 위해 우리 모두의 목소리와 행동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이 가정의 가치와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그에 대한 따끔한 경고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이런 반인륜적이고 무책임한 의원들의 행위를 국민에게 알리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우리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교회 내에서는 말씀을 통해 진정한 가정의 가치를 성경적 기준으로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님이 빛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이다. 자녀의 탄생은 반드시 가정 안에서의 소중한 사건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가정을 중요시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역할을 선하게 해야 한다. 교회는 생명을 존중하고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 생명존중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8~9 상) **만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는 말 할 것도 없이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받은 은혜와 친절로 인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은혜라는 말은 기독교만의 용어가 아닙니다. 세속에서도 불교에서도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실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관용적으로 표현합니다. 위에서 말한 세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편린들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필립 앤시는 이 책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란 무엇인지 여러 이야기를 예시로 하여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더라도 유통주의적인 신앙생활에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연약한 우리는 죄책감에 휩싸여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반쪽짜리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기독교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필립안시는 ‘죄책감은 은혜에 대한 갈망의 표출’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누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필요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상처나 분노, 복수심이나 죄책감 등으로 인해 마음에 평안이 깃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책은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소망하는 초신자의 필독서인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매일마다 새롭게 깨달으며 돌아봐야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이 한 권의 책을 성도님들께 추천드립니다. 이 책을 통해 사랑에 애타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만남**



박지운 목사
중구·용산교구
목양부

생명의 빛(Light of life)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속에 힘을 얻는 매일의 날들...

삶 속에서 놓쳐버린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아파하기보다는 걸음을 멈추고
다시 찾아올 그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만지시는 순간
가장 희미한 메아리까지도 놓치지 않는 내가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보내야 할 아픔과 깊은 어두움,
간직해야 할 평안과 사랑의 마음들,
그 모습들을 그림에 담아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귓가에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
“딸아! 너를 사랑한다. 정녕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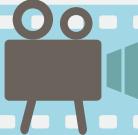
생명의 빛, 65.2x91cm, Acrylic on canvas, 2023
위 작품 포함 10점의 작품으로
‘제31회 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에서
골든십자가상 수상

‘생명의 빛’은 어느 날 문득 나의 가슴속 깊이 다가와 속삭이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렸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우주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별들이 세상을 밝혀 줍니다. 성령의 비둘기는 주님의 권능과 은총을, 하늘 가득 빛나는 별빛은 못 자국난 주님의 손에 머물며 말씀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 별빛을 타고 내리는 하늘의 은총은 메마르고 황폐한 땅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은혜로 아름답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주님의 끝없는 희생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희생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하얀 캔버스에 다양한 이미지를 담아 한 폭의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캔버스에 아크릴물감, 붓과 에어브러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

주님의 사랑과 힘을 담아내는 그림을 그릴
삶의 여정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만남**



송경희 권사
서대문·은평교구
영락미술인선교회



영락시어터 10월 상영 영화

(소강당, 주일 오후 2시)

10/1 미세스다웃파이어 (Mrs. Doubtfire, 1993)

감독: 크리스 콜럼버스 주연: 로빈 윌리엄스, 피어스 브로스넌 상영시간: 2시간 5분

다니엘은 만화영화 더빙 성우로 자유분방하게 살며, 아이들에게는 영웅 같은 존재였지만, 여러 번의 실직으로 인해 아내 미란다와 갈등이 커져 이혼하게 되고, 미란다는 아이들의 양육권까지 가져간다. 그런 다니엘은 미란다가 보모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미세스 다웃파이어라는 할머니로 변장하여 자신의 아이들과 다시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10/8 굿바이 마이 라이프 (Captains Courageous, 1937)

감독: 빅터 플레밍 주연: 프레디 바르톨로뮤, 스페서 트레이시 상영시간: 1시간 55분

하비는 부유한 사업가의 아들로, 제멋대로 구는 문제아이다. 그런 그를 아버지는 호화 여객선에 태워 유럽으로 보내기로 결정한다. 선상에서 장난하다 바다에 빠진 하비를 근처를 지나던 트룹 선장의 배가 구조해준다. 오만한 하비는 선장의 굳은 손끝에 금방 마음을 바꾼다. 어느 날, 감각스러운 폭우에 그를 구해준 마누엘이 위험에 처하는데…

10/15 업 (Up, 2009)

감독: 피트 닉터, 밥 피터슨 주연: 에드워드 애스너, 크리스토퍼 플리머 상영시간: 1시간 41분

애니메이션에서는 처음으로 칸 개막작에 선정된 디즈니 픽사의 3D 작품이다. 친근하면서도 성격이 까칠한 할아버지 칼은 평생의 꿈인 모험을 위해 집에 수많은 풍선을 매달아 남아메리카로 날아간다. 예상치 못하게 8살의 탐험가 러셀을 만나 잊혀진 남미의 세계에서 꿈과 희망, 그리고 행복을 찾아나선다.

10/22 작은아씨들 (Little Women, 1994)

감독: 질리안 암스트롱 주연: 위노나 라이더, 가브리엘 번 상영시간: 1시간 55분

마치가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메그, 조, 베스, 에이미 네 자매가 있다. 아버지는 남북전쟁에 참전하고 어머니와 힘들지만 어려운 이웃을 돋는 데 열심이다. 이웃에는 로렌스가의 손자 로리가 있다. 4년 뒤, 조는 뉴욕에서 글쓰기를 꿈꾸며 신문사에 글을 기고하는 일을 하고 있다. 어느 날, 동생 베스의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져 세상을 떠나고 만다.

10/29 마틴 루터 (Martin Luther, 1953)

감독: 어빙 피첼 주연: 가이 버니, 나이얼 맥기니스, 어빙 피첼 상영시간: 1시간 42분

메시아 오신지 1500년 후, 중앙 유럽은 신성로마제국의 지배를 받아 황제와 교황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했다. 하지만 독일 연방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풍요로웠다. 로마제국과 교회를 함께 지키라는 명령에 신도들은 로마 황제를 이땅의 통치자로, 교회를 천국에 가는 중재자로 두 개의 권위를 받아들였다.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진중세례식 5년만에 재개… 559명 세례



선교부(부장 김재완 장로)와 제2여전도회(회장 박옥경 권사)가 연합하여, 코로나19로 4년간 중단되었던 진중세례식을 9월 9일(토)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에서 거행했다. 장병세례예식은 우리 교회 교역자, 은퇴장로, 시무장로, 선교부 임원, 제2여전도회와 여전도회 연합찬양대 등 170여 명이 참석하여 세례예식을 도왔다. 연무대군인교회에 참석한 훈련병들은 “실로암” 찬양을 시작으로 군인들의 함성이 교회 안을 뜨겁게 달군 가운데 김운성 위임목사님이 “그대 곁에 계신 분”(사무엘상 17:45~47) 제목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세례예식은 예배자 950여 명 중 입대 전에 이미 세례 받은 훈련병을 제외한 559명이 세례를 받았다. 집례목사들이 군인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세

례를 주면 참석한 여전도회원들은 장병들의 어머니 심정으로 머리의 물을 닦아주며 축하했고, 축하 선물도 증정했다. 비전2030실천운동의 산실인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은 세계선교역사에 유일한 사도행전의 거룩한 사역이 실행되고 있는 최고의 영적 추수장이다.

제공 선교부



2023년 전교인 만남주일 행사 '북적'



9월 24일 주일에 열린 전교인 만남주일(전 간증주일) 행사가 봉사관 앞마당과 베다니광장에 마련된 각 교구 별만남의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흩어졌던 영락의 식구들을 환영하며 “누가 기록되는가(에스라 2:1~2)”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는 축복을 얻기 바란다’고 전했다.

각 교구의 구역장, 지회장 등 봉사자들은 반가운 구역 식

구들을 환영하며 그간의 안부를 묻고 준비한 떡과 다과를 나누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보냈다.

성도들은 해당 교구의 교역자와 만나, 그간의 간증과 기도 제목으로 기도받으며 은혜와 축복을 나누었다. 오랜 만에 교회 뜰은 성도들로 북적북적하여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축제의 자리가 되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유승현 선임기자

교육부 기도회로 하반기 힘찬 출발

지난 8월 26일(토) 교육부(부장 박홍준 장로) 주관으로 하반기 맞이 기도회가 드림홀에서 진행되었다. 교육부 각 단위부서의 교역자, 임원, 교사, 멘토, 리더를 대상으로 약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뜨겁게 기도했다. 하반기를 맞이하여 “기도로 재충전하라” 주제로 김운성 위임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며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를 쌓아가는 신앙의 교사’가 되기를 권면했다. 이어 방덕종 목사(교육전담)의 기도회 인도를 통하여 비전을 나누며 진정한 의미의 “기도로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다. 2부 순서로 교사와 리더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상반기에 열렸던 전국 어린이 대회(아동부) 및 서울 청년/청소년 동영상 콘텐츠 대회(중등부)의 수상자들을 축하하며 함께 모인

의미를 더했다. 뜨거운 기도회 이후 저녁식사와 함께 부서별 다과 및 교제의 시간을 통해 풍성한 나눔의 시간을 보냈다.

제공 이대근 집사(교육부 서기)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제직부서 회계 교육

예산위원회(위원장 신은정 장로)는 9월10일(주일) 50주년기념관 503호에서 2024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회계교육'을 제직부서, 기관 및 단체 임원 및 회계 봉사자를 대상으로 150여 명이 참석한 교육의 1부 경건회는 남정열 목사가 '씨를 뿌리는 자와 씨앗'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2부 설명회는 위원장의 인사말로 물가 인상에 따른 고정비 증가와 노후화 된 교회 건물의 관리부담 가운데 2024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본 교육에 임하여 예산위원회에서 2024년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편성안, 세출예산 운영원칙,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계정별/부서별), 예산편성 부서별 협의 일정 및



예산편성 작성 양식을 설명했다. 내년도에는 모든 부서가 긴축운영 체제 하에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여 부흥의 불씨를 지피게 하는 선택과 집중의 사역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IT미디어부의 2024년도 예산의 전산 입력 방법을 끝으로 본 교육 일정을 마쳤다.

제공 류재원 집사(예산위원회 서기)



영주시 미자립교회 지원금 3천만원 전달해

김운성위임목사는 지난 8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신영주교회에서 열린 <영주시기독교연합회>부흥성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영주시 미자립교회 지원금으로 3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 지원금은 영주지역 농어촌 선교의 일환으로 미자립교회를 돋는 발전기금으로 쓰여진다.



한경직복음학교
10월 7일 개학

주차별 강의 내용

- 1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개강예배, 한경직복음학교 소개, 영성일기 작성
- 2주: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소그룹-영성일기를 통해 깨달은 점 나누기
- 3주: 나와 이웃의 관계, 소그룹-영성일기를 통해 깨달은 점 나누기
- 4주: 나와 물질의 관계, 소그룹-영성일기를 통해 깨달은 점 나누기
- 5주: 영화 "한경직" 감상, 소그룹-영성일기를 통해 깨달은 점 나누기

일시 : 10월 7일(토) ~ 11월 4일 오전 10시(5주 과정)

신청 및 문의 : ☎ 02)2280-0292

2023 정책당회…내년도 사역 놓고 열띤 토론

2023년 정책당회가 9월 4~5일 가평 다일 수도원에서 열렸다. 목사님 26분, 시무장로님 57분, 은퇴장로님 33분이 함께 참여하여, 위임목사님이 설명하신 2024년도 영락 교회 목회 방향에 관한 제언을 공유하며, 각 위원회와 제직 부서에서 제안한 주요 사역 내용에 대해 듣고 토론했다.

이번 정책 당회에서는 특별히 현재 교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교회 건물에 대한 장기수선 관리 방안과 ‘교회 공간의 조성 및 조정 방안’에 관해 네 분의 장로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목사와 장로들이 네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자유롭게 토론했다. 두 번째 날에는 생명의 빛 예수마을 교회를 방문하여 홍정길 목사의 특강으로 ‘지금 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역의 간증과 한국 교회의



어머니 교회로서 영락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바란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이번 정책 당회 참석자는 2024년 교회 표어 ‘영락이여, 올라가라(사사기 1:1~2)처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함께 힘을 합쳐 도약하기를 다짐했다.

제공 박일환 장로(당회 서기)

영락사회복지재단 직원영성수련 및 창립기념감사예배

영락사회복지재단(이사장 박홍준 장로)은 9월 22일(금) 영락경로원 베다니교회에서 사회복지사업 84주년, 재단창립 66주년을 맞아 직원영성수련과 창립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1부는 임직원 대상 “일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장로회신학대학교 임성빈 교수의 강의와 2부 창립기념 감사예배는 김운성 위임목사님이 “경건의 기둥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영락교회 제4여전도회 특별 찬양이 더해져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다. 예배 후 영락사회복지재단에서 근무한 장기간 속 직원들의 표창과 시설 후원자 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후 영락경로원 잔디광장에서 영락사회복지재단 복지사역 84주년을 함께 해주신 교회 관계



자, 생활하시는 어르신과 가족, 직원들과 바비큐파티를 열어 친교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함께 한 모든 분은 영락사회복지재단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기로 다짐하며 마무리했다.

제공 영락사회복지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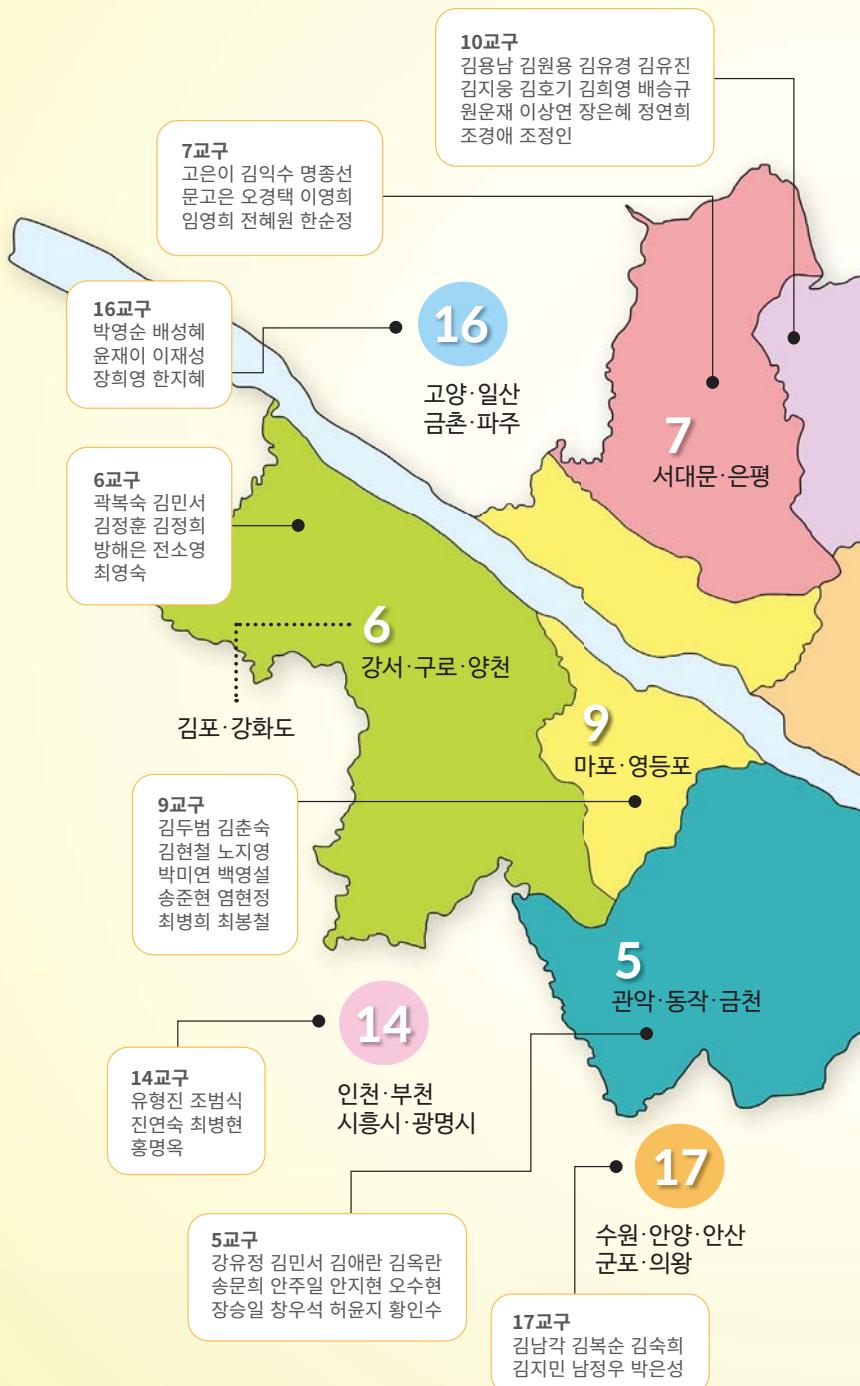
18명의 영아·유아 세례식 거행

지난 9월 17일 주일 찬양예배 시 18명의 유아세례식이 치러졌다. 세례식 집례를 한 김운성 위임목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받은 부모들에게 기도의 열매와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여 영락의 울타리에서 잘 키워나갈 것을 권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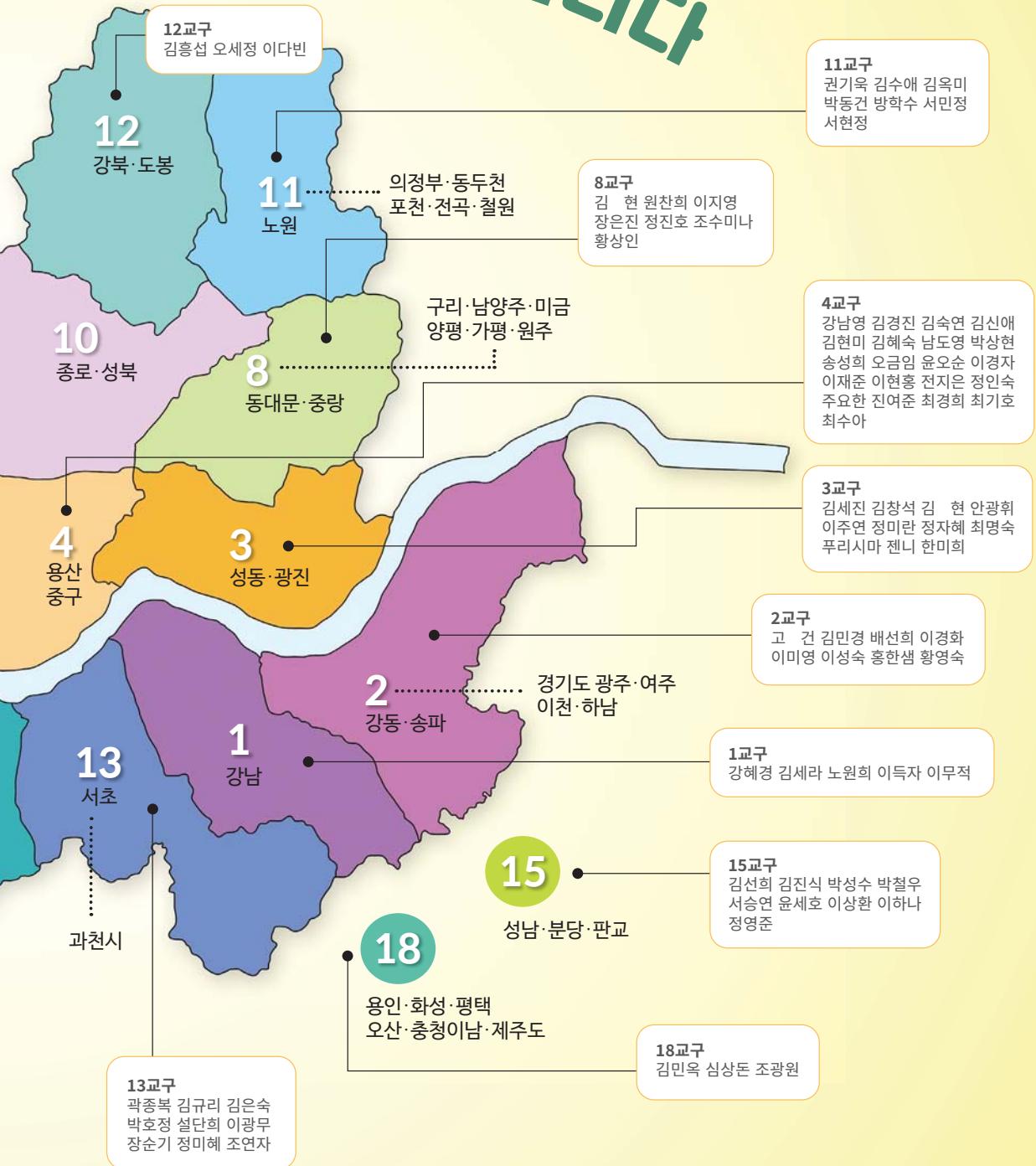
유아세례 명단

성명	성별	교구	구역
권하율	남	04	098
김다엘	여	08	035
김연우	여	07	003
김은우	남	07	003
김진아	여	18	021
김태림	남	15	025
노유은	여	13	026
박예인	여	04	098
안하은	여	15	001
양승윤	남	05	025
이서영	여	06	004
이주안	남	15	030
이준상	남	04	063
임예은	남	10	022
정라은	여	18	029
최윤우	남	14	041
최정훈	여	04	041
한루아	여	08	059

주 안에 한가족



되심을 기뻐합니다



야곱에 투사시킨 우리의 모습

이 그림은 고갱(1848~1903)이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 교회에서 야곱에 관한 설교를 들은 이후에 그린 그림입니다. 기울어진 나뭇가지를 기준으로 화면 왼쪽 아래는 현실 세계를, 오른쪽 위는 환영의 세계를 그려내며 그가 추구했던 혁신적인 미술의 방향성을 잘 보여줍니다. 움직이는 듯한 카메라 앵글이 왜곡된 공간과 시점을 한 장면에 그려내고 있고, 원근법이 적용되지 않은 구도, 불타오르는 원색의 붉은 바닥 색은 그 동안 약속되어왔던 형태, 비례, 구도를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인상주의의 짧은 봇 터치나 움직이는 듯한 빛의 포착과도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고갱은 원시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인,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방식의 새로운 미술 세계를 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일본의 에도시대 목판화가 가쓰시카 호쿠사이의 씨름꾼 소묘를 모태로 삼았으며, 사과나무 대각

선으로 공간을 나 눈 것은 히로시게



가 사용하던 구성이었습니다. 강렬한 붉은 색상의 단면도 일본 판화의 영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브르타뉴 전통의상을 입은 주민들이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는 모습으로 종교적 경건함과 신앙적 순결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싸름하는 야곱의 모습은 아버지를 속여 형의 복을 가로챌 정도로 복을 갈구하고 집착했던 야곱에 투사시킨 고갱의 모습이지만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빈손의 절절함으로 끝까지 천사를 놓지 않고 싸름한 그에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오직 하나님 의 도우심만 의지하게 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만남**

글 정재원 편집위원

2023년 10월호 통권 596호

발 행 2023. 10. 1.

발 행 인 김운성 지도목사 강승훈 편 집 인 김태영 편 집 장 권오란
편집위원 박순복 김재원 이형일 박선이 정용성 김성문 김성수 류정현 안동현 안하윤 이동훈 이해순 정재원
기 자 김경옥 박진현 이재향 이현지 인 미 최윤미 사진기자 원종석 유승현 교 열 계영희 이광미 유승호
발 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 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 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design D.I

스마트한 e세상

만남 e-book

mannam.youngnak.net



만남 웹진

www.youngnakmn.net



2024 항존직 선거 안내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락교회 행정장정 제34조 [항존직 선거] ④항 규정과 당회결의에 따라
장로 15명과 안수집사 15명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직한 선거가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바랍니다.

■ 선거일정

▶ 후보추천

9월 18일(주일) ~ 10월 1일(주일)

▶ 공천후보자 기도회

10월 22일(주일) 찬양예배 후, 벤엘

▶ 선거일자

본 투표는 후보를 확정한 후 2차에 걸쳐 전산개표방식 투·개표 진행

1차 투표(후보대상) : 11월 5일 (주일) 오전 8시 ~ 오후 4시 20분

2차 투표(1.2배수) : 11월 12일 (주일) 오전 8시 ~ 오후 4시 20분

■ 투표장소 : 50주년기념관 1층

■ 후보의 선정

1. 장로, 안수집사 후보로 추천된 후보자를 당회에서 공천을 하여

선출인원(장로 15인, 안수집사 15인)의 1.5배수를 후보로 선정한다.

2. 2차 투표는 미 선출 인원의 1.2배수로 실시한다.

■ 장로의 선택 (총회헌법 2편 제41조)

장로의 선택은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 안수집사의 선택 (총회헌법 2편 제54조)

집사의 선택은 총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영락교회 선거집행위원회 위원장 박홍준 장로

설교 후의 환영: 천사와 싸움하는 야곱

The Vision After the Sermon : Jacob wrestling with the Angel



▶ 작품 내용은 60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폴 고갱(Paul Gauguin)

종이에 유채(oil on canvas), 1888

Scottish National Gallery, Edinburgh